

한국영화  
100년의  
여행을 위한  
필독서

# 한국 영화사의 찬란한 순간과 마주하다!

한국영화 100선:  
〈청춘의 십자로〉에서 〈피에타〉까지

한국영상자료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한국 영화학자와 평론가,  
현장영화인들이 뽑은 한국영화 대표작 100선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았다.  
깊이 있는 식견, 풍부한 감성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수의 필진 52인이 한국영화사를 빛낸 영화들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한다.

ISBN 978-89-93056-45-7  
정가 25,000원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2014 03/04 Vol.36

ISSN 2005-0313

2014 03/04 Vol.36 MARCH/APRIL

# ★ 영화천국



한국영화  
100선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다시 살아나다”

KMDb VOD

YouTube 한국고전영화극장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KMDb VOD  
www.kmdb.or.kr/vod



YouTube 한국고전영화극장  
www.youtube.com/KoreanFilm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 CONTENTS

2014 03-04



한국영상자료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한국 영화학자와 평론가, 현장영화인들이 뽑은 한국영화 대표작 100선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안중화, 1934)부터 국내외 평단과 대중을 사로잡은 <피에타>(김기덕, 2013) 까지, 한국영화 100년 사에 기록된 보석같은 한국영화들을 <영화 천국>을 통해 미리 만나본다.

## \*영화천국

발행일 2014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이병훈  
편집위원 조소연, 조준형, 민병현, 유성관, 모은영  
편집 민병현, 장재현, 박재림  
발행처 한국영상자료원 (주) 121-27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대표전화 02-3153-2001  
www.koreafilm.or.kr  
다자인 오니트 주식회사 02-337-3690  
www.on-it.kr  
인쇄 (주)동인AP 02-6309-6400



02 시네마테크KOFI 3,4월 상영 일정

04 한국영화사 한 컷

<바보들의 행진> (하길중, 1975)

06 KOFI Report

10 해외통신 | 여선정

12 특집 | 한국영화 100선, 한국영화사의 찬란한 순간과 마주하다

한국영화사의 찬란한 순간들을 그려모으다

선정작품을 통해 본 한국영화의 흐름

한국영화 베스트 10

숫자로 보는 한국영화 100선

임권택과 이만화, 거장을 말하다

영화의 기호이자 정신, 영화 속 배우들

관객이 뽑은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는?

공동 1위 3편, 대중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다!

39 울드독의 영화 노트

<불나비>(조해원, 1965)

40 KOFI ISSUE

반세기 한국 대중가요사를 정리한 기록영화 찾았다!

44 주목할만한 시네마테크KOFI 기획전

이 봄, 그린라이트를 켜라!

영원한 어머니, 고(故) 황정순을 추억하다

바질 디어든의 <희생자Victim>와 로버트 알트만의 <퀸텟Quintet>

46 미리보는 시네마테크KOFI

일본영화계의 '희극지왕' 가와시마 유조 특별전 | 구민아

48 기증자료를 소개합니다

2013년도 기증자 감사장 증정식

49 KMDb VOD 기획전

한국 최고의 악당을 찾아서 - 장르영화가 사랑한 악인들

50 구석구석 한국영화박물관

현존 최고(最古) 영화 포스터 <임자없는 나룻배> 복원본

51 사심있는 영상도서관 가이드

영상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영상자료원 추천작들

52 구술로 만나는 영화인

어린이 만화영화의 역사, 김청기 감독 | 이정아

54 최지웅의 영화포스터 이야기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56 결작의 재발견

손재근 감독의 <이층의 악당>(2010) | 전종혁

58 이준희의 영화사 산책

<가요 반세기> 관람을 위한 안내문

60 LOUNGE

SNS로 말해요

한국영화계 키워드5

발행인의 글

64 나의사랑 나의영화

최아름·신아수 감독의 <이름들>(2013) | 박준





## 한국영화 100선

한국영화사의  
찬란한  
순간과  
마주하다!

한국영상자료원이  
40주년을 맞이해 한국영화  
100선(동물작 포함 101편)을  
발표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필름인  
1934년 작 <청춘의  
십자로>에서 2012년 작  
<피에타>까지 포괄하는 이  
목록은 단순히 한국영화  
대표작의 명단을 정리하는  
사업을 넘어, 한국영화사를  
돌아보고 존경을 표하며,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 목록은  
관심은 있었지만 우리 (고전)  
영화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랐던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영화사를 찬란하게  
수놓은 101편의 영화를  
만나보자.





한국영화 100선  
선정 과정과 의의

1934년 제작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무성영화로 기록된 <청춘의 십자로>(안중화)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2012년 작 <피에타>

## 한국영화사의 찬란한 순간들을 그러모으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XXX100선'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이벤트 결과를 접할 수 있다. 비단 한국영화 100선뿐 아니라 근대문학 100선, 근·현대회화 100선,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뮤직 100선, 한국관광지 100선 등 영화를 비롯해 문학·음악·회화·여행지 등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100선이 발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XXX100선'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우리는 종종 어떤 한계에 갇히고 만다. 아마도 '선정'이라는 어휘가 갖는 권위 때문일 텐데, 'XXX 100선'은 반드시 알아야 할, 혹은 반드시 보고, 듣고, 읽어야 할 일종의 교양과 상식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선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지 않은 것들은 종종 간과되거나 잊히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월 발표한 한국영화 100선은 기획 단계부터 '선정'이라는 용어가 지닌 오해의 소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무수히 많은 영화를 고작 100편으로 추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영화 100선을 기획하고, 여러 영화학자와 평론가, 영화계 종사자들에게 선정을 의뢰한 데에는 이것이 한국영화 제작의 100여 년 역사를 되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선정 방식과 절차를 세우고 선정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4개월 가까운 준비 기간, 2개월의 투표 설문 기간, 1개월여의 투표 집계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동물 작품을 포함한 총 101편의 작품이 한국영화 100선으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안중화, 1934)에서 2012년 국내외 평단과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피에타>(김기덕, 2012)까지, 한국영화사의 찬란한 순간들이 한국영화 100선의 목록을 채우게 되었다.

물론 앞서 '선정'이라는 어휘의 위험성을 언급했듯, 이번에 발표한 한국영화 100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영화사의 정전(正傳)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고, 앞으로 제작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굴될 영화들이 켜켜이 쌓여 언젠가 새로운 한국영화 100선 목록이 채워질 가능성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영화 100선은 선정 당시인 2013년의 현재적 관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작품들을 추린 결과로, 선정 시점에서 한국영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영화, 나

아가 영화에 대한 관점과 가치가 변한다면 향후의 한국영화 100선의 목록 역시 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한 한국영화 100선은 한국영화계와 평단이 현재 시점에서 한국영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영화 100선은 어떻게 선정되었나

한국(고전)영화에 조예가 깊은 영화학자, 평론가, 영화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선정위원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은 먼저, 기 발표된 서적과 논문, 비평문 등을 조사해 선임 대상 후보진을 정리하고, 현장 영화인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화 관련 단체 및 저널 등 총 13개 기관에 선정위원 추천을 의뢰, 그중 9개 기관(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학회, 씨네21)이 추천에 응해주었다. 자료원이 자체 작성한 선임 대상 명단과 기관으로부터 받은



‘한국영화 100선’에서 공동1위를 차지한 〈하녀〉〈오발탄〉〈반포들의 행진〉

추천인 명단을 취합한 후, 한국영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자료원 내부의 연구원 및 프로그래머 5명이 선정위원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총 62인의 선정위원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선정위원단 62인에게 개별적으로 한국영화 100선 선정을 의뢰하였고, 투표 종료 후 3주에 걸친 집계 결과, 동률작 포함 총 101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

추천  
설문  
과정

설문 투표 기간

2013년 4월 24일 ~ 6월 23일 (2개월)

선정 대상 작품

초창기~2012년 12월 31일까지 극장에서 개봉한 현존하는 모든 한국 장편영화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불문)

설문 투표 방식

선정위원 1인별 100편 이내의 작품 추천 (순위 고려 없음)

추천 기준

(예시적 기준이며 반드시 구매받을 필요는 없음)

-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
- 당대의 대중 의식을 반영했거나 한국 사회의 독특한 맥락에서 제작되어 사적 연구 가치가 높은 작품
- 장르적 혹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
- 당대 미학적, 장르적 실험성이 강해 새로운 작품 경향을 실현한 작품
- 작품의 주제와 소재 면에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작품
- 주요 영화제 및 평단,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작품
-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작품

한국영화 100선 목록

\* 동률 작품 포함 101편

\* 정렬순 | 제작연도 (제작연도 동일의 경우 영화 개봉 시기를 우선)

	제목	제작연도	감독	순위(~10위)
일제강점기	청춘의 십자로	1934	안종화	
	미몽	1936	양주남	
	집없는 천사	1941	최인규	
	반도의 봄	1941	이병일	
광복 이후 ~ 1950년대	자유만세	1946	최인규	
	마음의 고향	1949	윤용규	
	운명의 손	1954	한형모	
	피아골	1955	이강천	
	자유부인	1956	한형모	4위
	시집가는날	1956	이병일	
	돈	1958	김소동	
	지옥화	1958	신상옥	
	로맨스 빠빠	1960	신상옥	
	박서방	1960	강대진	
	하녀	1960	김기영	공동 1위
	성춘향	1961	신상옥	
1960년대	마부	1961	강대진	5위
	오발탄	1961	유현목	공동 1위
	삼등과장	1961	이봉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961	신상옥	공동 9위
	서울의 지붕밑	1961	이형표	
	고려장	1963	김기영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63	이만희	
	김약국의 딸들	1963	유현목	
	혈맥	1963	김수용	
	맨발의 청춘	1964	김기덕	
	마의 계단	1964	이만희	
	검은머리	1964	이만희	
	갯마을	1965	김수용	
	비무장지대	1965	박상호	
	초우	1966	정진우	
	산불	1967	김수용	
	귀로	1967	이만희	
	안개	1967	김수용	
	미워도 다시 한번	1968	정소영	
	장군의 수업	1968	이성구	
1970년대	휴일	1968	이만희	
	화녀	1971	김기영	
	화분	1972	하길중	
	별들의 고향	1974	이장호	6위
	영자의 전성시대	1975	김호선	공동 9위
	삼포가는 길	1975	이만희	
	바보들의 행진	1975	하길중	공동 1위
	겨울여자	1977	김호선	
	이어도	1977	김기영	
	장마	1979	유현목	
	최후의 증인	1980	이두용	
	바람불어 좋은날	1980	이장호	공동 7위
1980년대	피막	1980	이두용	
	썩코	1980	임권택	
	만다라	1981	임권택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1981	이원세	

	제목	제작연도	감독	순위(~10위)
1980년대	교방동네 사람들	1981	배창호	
	여인천하사 물레야 물레야	1983	이두용	
	바보선양	1983	이장호	공동 9위
	고래사냥	1984	배창호	
	깊고 푸른 밤	1985	배창호	
	길소뜸	1985	임권택	
	티켓	1986	임권택	
	씨받이	1986	임권택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않는다	1987	이장호	
	칠수와 만수	1988	박광수	
	개그맨	1988	이명세	
	달마가동쪽으로 간 까닭은?	1989	배용균	
1990년대	우물배미의 사랑	1990	장선우	
	파업전야	1990	장산꽃매	
	남부군	1990	정지영	
	그들도 우리처럼	1990	박광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990	이명세	
	경마장 가는길	1991	장선우	
	결혼이야기	1992	김의석	
	하얀전쟁	1992	정지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	박종원	
	서편제	1993	임권택	공동 9위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1995	변영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박광수	
2000년대 이후	꽃잎	1996	장선우	
	돼지가 우물에 빠진날	1996	홍상수	
	넘버 3	1997	송능한	
	8월의 크리스마스	1998	허진호	
	강원도의 힘	1998	홍상수	
	쉬리	1999	강제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	이명세	
	박하사탕	1999	이창동	
	춘향뎐	2000	임권택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000	류승완	
	공동경비구역 JSA	2000	박찬욱	
	소름	2001	윤종찬	
2010년대 이후	복수는 나의 것	2002	박찬욱	
	지구를 지켜라!	2003	장준환	
	살인의 추억	2003	봉준호	공동 7위
	바람난 가족	2003	임상수	
	올드보이	2003	박찬욱	
	승환	2003	김동원	
	빈집	2004	김기덕	
	가족의 탄생	2006	김태웅	
	괴물	2006	봉준호	
	밀양	2007	이창동	
	마더	2009	봉준호	
	시	2010	이창동	
2020년대	피에타	2012	김기덕	



한국영화사  
100여 년의 기록

## 선정 작품을 통해 본 한국영화의 흐름

조준형\_연구부 zeitsein@koreafilm.or.kr

이 글은 한국영화 100선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간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영화사 100년을 짧은 글로 섭렵할 수는 없으므로 선정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국영화를 간단하게 훑어보기로 하자.

### 영화의 도입에서 일제강점기까지

1900년대 초 영화라는 신물물이 처음 도입되었지만, 최초의 영화라 인정받는 연쇄극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김도산, 1919)와 최초의 극영화라 불리는 〈월하의 맹서〉(윤백남, 1923) 이후에야 조선영화 제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6년 〈아리랑〉(나운규)의 성공은 조선의 무성영화 제작계에 이전과 다른 가능성과 활력을 부여했고, 1930년대 초까지 조선 무성영화는 활황기를 맞이했다. 100선 중 가장 오래된 영화인 〈청춘의 십자로〉(안중화, 1934)는 무성영화 말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식민지 조선 무성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1935년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이 제작된 이후, 조선영화계는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양주남 감독의 〈미몽〉(1936)은 초기 발성영화에 속한다. 식민지 경성의 다양한 풍경과 생활상,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여성 주체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결여된 이 영화는 당대의 풍속과 정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본격적인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면서 영화는 통제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일제는 이 기간 영화인 등록제와 함께 조선영화령을 통해 강력한 검열을 실시했으며, 조선의 영화 제작사들을 통합해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화인이 일제에 협력했고, 1930년대 말 이후 한국영화사는 깊은 어둠에 묻혔다. 이 기간에 나온 이병일의 〈반도의 봄〉(1941)은 저열한 상태에 놓여 있던 조선영화계에 대한 자조를 일본 영화 산업에 대한 선망과 착종시킨 영화로, 일제의 ‘영화 신체제’ 정책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보인다. 최인규의 〈집없는 천사〉(1941)는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에서 필름을 들여와 공개하기 이전까지, 한국 리얼리즘 걸작의 계보에 놓였던 영화다. 그러나 막상 영화가 공개되었을 때 친일적인 메시지가 포함된 영화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반도의 봄〉과 〈집없는 천사〉가 ‘한국영화 100선’에 포함된 것은 부끄러운 기억까지 한국영화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반성적으로 사유하기를 원하는 선정위원들의 고민의 흔적으로 보인다.

### 광복과 전쟁, 그리고 1950년대: 한국영화 부흥기

광복 이후 6·25전쟁 이전의 혼란기, 최인규는 독립운동가들의 영웅적인 행적을 다룬 〈자유만세〉(1946)와 〈독립전야〉(1948)를 연출함으로써 일제 말기의 친일 행적의 오점을 덮고자 했다. 1949년 윤용규 감독이 연출한 〈마음의 고향〉은 작은 산사를 무대로 동승(어린 스님)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백하고 아름다운 화면으로 그려냈다.

전쟁이 끝나자 한국영화는 급격한 발전 양상을 보였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영화 중흥기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는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이었다. 당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비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키스신과 약간의 베드신까지 포함되어 원작을 넘어서는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를 통해 한형모는 1950년대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부상했다.

이강천 감독의 1955년 작 〈피아골〉은 빨치산의 만행을 빨치산 내부의 관찰자 시선으로 담아낸 수작이었으나, 당시에는 ‘용공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한 당대 열악한 농촌 현실을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담아낸 김소동 감독의 〈돈〉(1958)은 1950년대 후반의 주목할 작품 중 한 편이다. 다른 한편 당대 배급주의 풍조를 비판하고 낭만적 사랑을 우화적으로 옹호한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1956)은 국제영화제(아시아영화제) 최초 수상작으로 기록되었다.

### 혁명과 함께 시작된 1960년대, 그리고 한국영화의 전성기

4·19혁명은 영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5·16 군사정변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검열이 사라진 대략 1년간, 상당수의 문예작이 배출되었다. 한국영화 감독 중 가장 독특한 개성과 창조력을 보여준 김기영의 〈하녀〉(1960), 당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매섭게 해부한 유현목의 〈오발탄〉(1961), 영원한 고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신상옥, 1961),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는 〈삼등과장〉(이봉래, 1961) 등 한국영화사의 걸작들이 나타난 시기였다.

1960년대 초 새롭게 부상한 장르는 가족드라마였다. 서민의 생활고를 소소한 에피소드로 엮어내는 이 장르는, 사적 문제와 공적 문제를 가족이라는 틀을 통해 절묘하게 버무려낸 걸작들을 낳았다. 이 장르는 특히 김승호라는 당대의 걸출한

배우가 대부분 아버지로서 주연을 맡아 속칭 ‘김승호표’ 영화라 불리기도 한다. 이번 100선에는 〈로맨스빠빠〉(신상옥, 1960) 〈박서방〉(강대진, 1960) 〈마부〉(강대진, 1961) 〈삼등과장〉 〈서울의 지붕밑〉(이형표, 1961) 〈혈맥〉(김수용, 1963) 등 무려 6편의 가족드라마가 속해 있다.

1960년대 황금기 동안 김기영과 이만희, 유현목, 신상옥, 김수용 등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자신들의 최고 작품을 내놓았다. 유현목은 〈오발탄〉 이후 〈김약국의 딸들〉(1963) 〈카인의 후예〉(1968) 〈장마〉(1979)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 연원과 그 치유를 끈질기게 추구해나갔다. 신상옥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벼어리 삼룡〉(1964)과 같은 멜로드라마뿐 아니라, 〈연산군〉 연작(1962) 〈대원군〉(1969) 등을 내놓으면서 정통 사극 장르를 개척했다. 이만희는 1960년대 초중반까지 장르영화의 외피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메시지를 각인시킨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마의 계단〉(1964) 〈검은 머리〉(1964) 등의 걸작을 만들었다.

1960년대 중후반의 3~4년간은 외화 수입 쿼터가 문예영화에 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장르가 융성했다. 김수용은 〈갯마을〉(1965) 이후 〈안개〉(1967) 〈산불〉(1967) 〈까치소리〉(1967) 〈봄봄〉(1969) 등을 발표하며 대표적인 문예영화 감독으로 각인되었다. 이만희는 문학을 원작으로 하지 않는 독특한 문예영화 감독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필름이 사라진 〈만추〉(1967)를 비롯해 〈귀로〉(1967) 〈휴일〉(1968) 같은 영화는 당대 한국영화 예술의 가장 빼어난 성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김기영은 한국 사회 내부의 무의식을 하층민 여성에 대한 독특한 공포로 치환해 해부한 〈하녀〉를 〈화녀〉(1971) 〈충녀〉(1972) 〈화녀 82〉(1982) 〈육식동물〉(1984) 등의 연작으로 변주했다. 설화적인 세계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탄생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고려장〉(1963)과 현대 문명과 조우하면서 소환되는 전근대의 샤머니즘과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작 〈이어도〉(1977) 역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 TV의 보급과 영화산업의 몰락: 1970~80년대 중반

196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국영화 산업은 1970년

대로 접어들면서 TV의 등장과 권위주의 정권의 엄혹한 검열 등으로 완전한 쇠락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청년영화’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최인호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1974)은 흥행 신기록을 세우며 전국적인 신드롬을 낳았다. 하길중은 실험적인 데뷔작 〈화분〉(1970)을 통해 한국에서 희귀한 정치적 모더니즘 계열 영화를 선보였고, 청춘영화의 상징 격인 〈바보들의 행진〉(1975)으로 비평과 흥행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장호, 하길중과 함께 ‘영상시대’의 동인이었던 김호선은 〈영자의 전성시대〉(1975)와 〈겨울 여자〉(1977)를 연이어 히트시켰다. 이 영화들은 1970년대 하층 여성들의 비극, 젊은이들의 고뇌와 우울을 병적인 정조로 담아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1980년대는 ‘서울의 봄’과 함께 시작됐다. 몇몇 문제작이 이 잠깐의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발표되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한 빨치산을 쫓는 전직 경찰관의 추적과 둘 간의 화해를 다룬 임권택 감독의 〈썩코〉(1980), 6·25전쟁 시기 인간의 잔학성과 탐욕을 고발한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1980) 등은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1980년, 또 하나의 문제작은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이다. 상정한 세 하층 청년의 일상을 통해 개발 광풍과 한국 사회의 줄부 근성을 비판한 이 영화는 1970년대라면 상영이 금지되었을 영화다. 이후 이장호 감독은 신군부의 검열 정책에 반항적으로 내놓은 〈바보선언〉(1983)과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1987)와 같은 일련의 실험적인 걸작들로 1980년대 초 중반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이장호의 조감독 출신 배창호 감독은 〈꼬방동네 사람들〉(1981) 〈적도의 꽃〉(1984) 〈고래 사냥〉(1984) 〈깊고 푸른 밤〉(1986) 등, 장르와 분위기가 다소 다른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다양한 방면에서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풍자한다. 임권택 감독은 〈썩코〉(1980)에 이어 〈만다라〉(1981)를 통해 자신의 영화 세계에 깊이를 더해갔다. 〈길소뜸〉(1985)은 6·25전쟁이 빚은 이산의 아픔을, 〈티켓〉(1986)은 하층 여성들의 비극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다. 1980년대 후반 임권택은 한국적인 소재를 영화화한 일련의 작품들(〈씨받이〉(1986) 〈아다다〉(1987)

〈아제아제 바라아제〉(1988))로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연속 수상함으로써 국제영화계에서 그의 진가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 개봉관을 통해서만 100만 명이 넘는 기록적인 흥행 결과를 낳은 〈서편제〉(1993)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감독’의 위치에 올랐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화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 흐름 속에서 재능 있고 진보적인 젊은 감독들이 영화계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박광수는 1988년 데뷔작 〈칠수와 만수〉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레드 콤플렉스와 미국에 대한 선망을 풍자한다. 그는 이후 〈그들도 우리처럼〉(1990)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등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고민하는 진지하고 성찰적인 영화들을 발표했다. 〈우묵배미의 사랑〉(1990)을 통해 하층민 유부남 유부녀의 정분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장선우는 〈경마장 가는 길〉(1991) 〈너에게 나를 보낸다〉(1994) 〈거짓말〉(1999) 등으로 지식인과 예술가의 위상을 해체하고 위선을 고발함으로써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정지영은 〈남부군〉(1990)과 〈하얀 전쟁〉(1992)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전쟁의 본질을 재고하도록 만든다. 앞의 세 감독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명세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보여주었다. 1988년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이 나른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0) 〈첫사랑〉(1993) 등을 통해 과장되고 인공적인 작위성의 미학을 구축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제도권 독립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열악한 노동 현실과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장산 꽃매의 〈파업전야〉(1990)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영화다.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김동원 감독의 〈송환〉(2003)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비전향 장기수와 함께한 10년간의 기록을 통해, 이념에 앞서는 인간애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참여적인 목소리를 들려준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변영주의 〈낮은 목소리〉3부작은 단순히 소재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작가와 대상 인물의 교감이 어떤 감동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초기 강한 운동성을 지니던 독립영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성도 높은 장르영화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류승완 감독이 연출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0)는 독립 저예산 장르영화가 상업영화 못지않은 완성도와 대중적 감수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2000년대 이후 대중적 독립영화의 모델이 되었다.

####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등장과 글로벌 한국영화

1997년과 1998년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해다. 새롭게 등장한 김대중 정권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과감한 영화산업 지원 정책이 뒤따랐다. 1998년, 최초로 등장한 멀티플렉스는 영화 상영 관행과 관람 문화를 빠른 시간에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1998년 발표된 강제규 감독의 〈쉬리〉는 이 시기 한국영화계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이 영화는 전국 6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 그간의 한국영화 흥행 기록을 하찮게 만들었다. 〈쉬리〉이후 〈공룡정비구역 JSA〉(박찬욱, 2000) 〈실미도〉(강우석, 2003) 〈괴물〉(봉준호, 2006) 등 거의 매년 한국영화의 기록이 경신됐다. 할리우드에서 유래한 명칭에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호칭은 한국 상업영화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할리우드적인 보편성을 추종하는 양가적인 기호였다.

2000년대 초는 또한 빼어난 영화적 완성도와 개성 있는 작품이 다수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기라 할 만하다. 공포영화 장르를 빌려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무의식을 광기 어린 에너지로 포착한 〈소름〉(윤종찬, 2001),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노동 착취의 현실을 기괴한 SF영화로 고발한 놀라운 상상력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장준환, 2003), 한국 사회의 성역으로 남아 있던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과격하게 해체하고 비판한 〈바람난 가족〉(임상수,

2003),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가족 모델을 제시한 〈가족의 탄생〉(김태용, 2006) 등은 2000년대 초중반 한국영화계를 풍요롭게 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한국영화의 자신감은 세계영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작가들의 등장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그 선봉에는 역시 임권택 감독이 있었다. 판소리와 영화의 이중결합이라 할 만한 실험작 〈춘향전〉(2000)은 한국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고, 〈취화선〉(2002)으로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이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복수는 나의 것〉(2001)을 통해 그만의 영화 세계를 본격적으로 보여준 박찬욱 감독은 2003년 〈올드보이〉로 한국영화 감독 중 처음으로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홍상수 감독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과 〈강원도의 힘〉(1998) 등을 통해 독특한 형식과 세계관의 영화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는 일상의 아이러니를 그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담아내는 다수의 영화를 연이어 발표해, 해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 감독 중 한 명이 되었다. 아마도 김기덕은 해외 주요 영화제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국 감독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사마리아〉(2004) 〈빈집〉(2004) 〈아리랑〉(2011) 등으로 베를린, 베니스, 칸 등의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고, 2012년 마침내 〈피에타〉를 통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다. 이창동 감독은 〈박하사탕〉(1999) 〈오아시스〉(2002) 〈밀양〉(2007) 〈시〉(2010)를 발표하며 도저한 사회의식과 윤리관을 보여주었다. 〈밀양〉은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시〉는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2003) 〈괴물〉(2006) 〈마더〉(2009)를 통해 영화적 오락성과 역사성, 사회적 메시지를 정교하게 직조해내는 놀라운 연출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그는 다국적 프로젝트인 〈설국열차〉(2013)로 세계영화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



## 한국영화 베스트 10

### 〈하녀〉(김기영, 1960)

정지연 \_ 영화평론가 woodyallen@hanmail.net



김기영이라는 이름을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그리고 '검은 마성의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적합한 수식으로 만든 역작이다. 이층집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자본주의와 중산층의 욕망, 가부장적 책무와 윤리를 무력화하는 성적 유희와 금기, 현신적인 아내와 대비되는 원시적 열정의 하녀 등의 키워드로 무장한 이 작품에서 모든 비극은 평범했던 한 가족이 그들의 계급적 상승을 상징하는 2층집으로 이사하면서 시작된다. 중산층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사회적 노동과 윤리에 더 순응해야 하지만, 이 환상의 구조 안으로 침입해온 어린 여공의 적나라한 욕망(성욕과 계급적 욕망)은 그 어떤 시선이나 금기에도 제어되지 않은 채 가족들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한 가족의 파괴적 치정극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이제 막 본격화한 한국적 자본주의와 근대성의 괴물들(억압, 금기, 처벌, 혼욕 등)을 그로테스크한 심리극으로 은유한 작품이었다. 여성이라는 존재의 원시주의적 매혹과 공포, 근대적 남성의 기만과 불구성, 무엇보다도 지배와 권력, 욕망의 문제를 시선과 공간의 미장센으로 완성한 〈하녀〉의 표현주의적 재현은 2000년대 발표된 그 어떤 한국 영화보다도 더 현재적인 담론과 미학적 성취를 끌어냈다.

### 〈오발탄〉(유현목, 1961)

김종원 \_ 영화평론가 kinopoet@hanmail.net



〈아리랑〉(1926)과 〈임자 없는 나룻배〉(1932)가 각기 나운규와 이규환의 작품을 대표하는 것처럼 유현목의 〈오발탄〉 역시 그런 반열에 오른 시대정신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이루어진 해방촌의 판잣집에는 계리사사무소 직원 송철호(김진규)네 일곱 식구가 모여 산다. 정신이상인 어머니(노재진)와 만삭인 아내(문정숙), 상이군인인 동생 영호(최무룡),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서애자), 학업을 포기한 채 신문팔이에 나선 막내동생 민호, 그리고 어린 딸 혜옥이 바로 그들이다. 박봉과 치통에 시달리면서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형과는 달리 실업자인 영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만을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오발탄〉에서 드러난 유현목의 현실 인식은 매우 어둡다. 이런 요소는 무력한 가정이 해산하던 아내를 영양실조로 잃고 동생마저 은행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히는 국면에서 잘 나타난다. 철호는 썩은 이를 뽑고 아내 대신 새로운 생명체를 얻게 되지만 방황과 좌절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발탄〉이야말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떠오른 리얼리즘 영화의 수작이 아닐 수 없다.

### 〈바보들의 행진〉(하길중, 1975)

이상용 \_ 영화평론가 poema@jiff.or.kr



1970년대는 유신 이념으로 통치되는 독재의 시대였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발 단속을 비롯해 각종 검열 제도가 시민사회를 억압했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문화'가 피어났다.

주인공 병태와 영철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과 미팅을 하며 대학 생활의 낭만을 만끽한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고민을 나누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점점 더 깊어져간다. '고래사냥'의 노랫말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현실의 부조리함은 점점 더 커져감을 깨닫게 된다. 대학 안쪽에는 젊음의 낭만이 있지만 바깥의 현실에는 억압과 폭력이 있다. 그 사이에서 이들은 미래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1970년대는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느끼기는 해도 탈출을 시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대였다. 우리는 이 영화에 곳곳에서 치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춘의 몸부림을 본다. 그것은 옷통을 벗고 거리를 질주하는 한국식 스트립쇼이고, 술을 먹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 몸짓 속에,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현재형의 의미가 있다.

### 〈자유부인〉(한형모, 1956)

이정하 \_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교수 ljha2003@hanmail.net



영화 〈자유부인〉은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된 정비석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것이다. 이 영화를 만든 한형모는 실제로 1950년대 가장 뛰어난 현실 감각을 지닌 멜로드라마 감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감독은 영화의 유명세에 빌미를 제공한 '대학교수 부인의 성적 일탈'이라는 선정적인 소재를 1950년대 후반의 섬세한 사회·문화적 지형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당대의 세태와 정서, 윤리식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사회·문화적 지형도가 그려내는 한국 사회는 6·25전쟁 동안 물밀듯이 유입된 미국식 개인주의와 생활양식, 그리고 자본주의적 가치들과 소비 문화가 전통적 관습, 문화, 가치관과 격렬히 충돌하는 혼돈과 변화의 장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여성의 욕망과 일탈은 바로 옛것과 새것이 서로 혼종되고 교차하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영화는 결말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자유부인 오선영의 참회의 눈물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가치체계를 복구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화가 시종일관 제시하는 시각적 경험들은 기존 사회질서와 가치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묵하 진행 중인 변화의 움직임, 특히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감각적 소여들이다.



## 〈마부〉(강대진, 1961)

정종화 \_ 한국영상자료원 연구부 flickers@koreafilm.or.kr



영화사 걸작 목록이, 거창하고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 예술영화나 공인받은 거장 감독의 작품에서만 나온다면 얼마나 고무하고 재미없을까. 대학에서 영화연출을 교육받은 1세대로, 신상옥 감독의 연출부를 거쳐 당시 유행하던 멜로드라마 장르로 필모그래피를 시작한 젊은 영화감독 역시 자신의 네 번째 작품을 한국영화 베스트 10에 올렸다. 아마 강대진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는, 다른 선배 감독들의 작품을 제치고 운 좋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고, 은곰상인 심사위원특별상까지 받아 한국영화 최초의 3대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기록되고, 또 훗날 한국영화사의 걸작으로 등극하리란 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터.

영화 〈마부〉가 제작된 시기는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 사이, 한국 사회에 희망 섞인 에너지가 응집했던 정치적 격변기였다. 그럼에도 강대진은 그들 앞에 놓인 남루한 일상을 살아내는 서민들의 모습을 차분하게 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영화는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며 각자의 가치로 경합하는 1960년대 초입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솜씨 있게 포착한다. 특히 춘삼이 다리를 절며 장남 수업과 마주집에 말을 반납하러 가는 신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영화적 이미지로 탁월하게 묘사해낸 장면. 〈마부〉는 무척 고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1960년대 초반 한국 서민들의 동화다.

## 〈별들의 고향〉(이장호, 1974)

권은선 \_ 중부대학교 교수 eskon11@hanmail.net



〈별들의 고향〉은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으로 1974년 개봉 당시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당시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신 체제라는 삼엄하고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불구 하고 당대의 '청년문화'가 한국영화의 장에 이식되어 그 꽃을 피운 순간이다.

청년문화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근대화로 인한 대학생 인구의 급증과 '통블생(통기타, 블루진, 생맥주)'으로 대변되는 서구 대중문화의 유입을 배경으로 발흥했다. 청년문화의 상징적 인물인 최인호의 메가 히트 신문 연재소설을 원작으로 한 〈별들의 고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감각적인 영상과 대중소설의 통속적 감수성에 힘입어 젊은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제 입술은 작은 술잔이에요." "경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아저씨, 추워요, 안아줘요." 같은 명대사가 유행했으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 소녀가 울고 있네' 등 이장호가 작곡한 OST 넘버들 역시 크게 히트했다.

후에 〈별들의 고향〉은 〈영자의 전성시대〉와 〈겨울여자〉의 연속적 흥행 성공에 힘입어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로 명명되었다. '경아 신드롬'을 일으킨 여주인공 경아는 영자, 이화와 더불어 197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별들의 고향〉은 나름대로의 변신을 겪으며 1980년대까지 지배적 장르로 군림한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의 전범이 되었다.

## 〈바람불어 좋은 날〉(이장호, 1980)

남동철 \_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nam1336@biff.kr



〈바람불어 좋은 날〉은 1970년대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작품이다. 1980년 광주의 끔찍한 학살이 있던 시절, 〈바람불어 좋은 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사회적 리얼리즘의 시대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장호 감독은 1970년대 일자리를 구하러 상경한 가난한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서럽고 억울한 당대 현실을 고발했다. 영화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힘들게 살고 있는 덕배(안성기), 길남(김성찬), 춘식(이영호) 등 세 청년의 이야기다. 덕배는 중국집 배달, 길남은 여관 심부름, 춘식은 이발소 조수로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그들은 욕망의 위계질서에서도 최하층에 위치한다. 영화에서 계급사회의 현실은 주로 욕망의 위계질서를 통해 표현되고 그로 인해 〈바람불어 좋은 날〉은 단순한 리얼리즘 영화를 뛰어넘는다. 영화는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그려내는 동시에 그걸 넘어서는 욕망의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다. 세 젊은이는 배운 게 없고 돈이 없어 억울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서러워도 목소리 높여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모욕을 견디며 살아가지만 영화 속 다른 인물들을 보면 꼭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바람불어 좋은 날〉이 보여주는 인간은 욕망의 희생자 혹은 실패자들이다. 그리고 그 점이 세월이 흘러도 이 영화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 〈살인의 추억〉(봉준호, 2003)

이용철 \_ 영화평론가 ibuti@korea.com



〈살인의 추억〉은 미해결 사건을 소재로 선택한 영화다. 주인공은 불안을 품은 괴물을 잡으려다 점점 그것을 닮아가는 형사들인데, 이상하게도 사건의 현장이나 범인의 주변보다 취조실을 주요 배경으로 삼은 영화의 관심은 비단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나기는커녕 진실이 문힐 법한 공간으로 그려진,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취조실이란 공간 자체가 애초부터 진실의 접근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박 형사는 첫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배수관을 우연히 방문한다. 17년 전과 변함없이 검은 입을 벌린 배수관은 범인이었는지 모르는 용의자 박현규가 사라진 검은 터널의 축소판이다. 박 형사는 배수관의 저편 끝을 본다. 그곳엔 시간의 터널을 통과한 현재가 놓여 있을까, 아니면 진실을 찾지 못한 1980년대의 얼굴이 숨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화의 제목에 숨어 있다. 진실을 아는 자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진실을 모르는 자에게 과거는 단순한 추억의 대상이다. 그것이 살인의 기억이 아니라 살인의 추억인 이유다. 1980년대는 살인을 추억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다.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이장호, 1961)

변재란 \_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교수 jjarani@naver.com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주요섭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신필름이 최소 자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영화이자 〈성춘향〉에서 이어지는 신상옥 감독의 절제와 세련미, ‘아역배우 전영선의 해맑은 연기가 관객의 시선을 끈 주옥같은 영화’로 기억된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원작에서의 사건 간 인과관계를 부분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첨가함으로써 ‘문예영화’의 성격을 띠면서도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잘 살리고 있다는 데 있다.

수절과 인내의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최은희를 ‘미망인’으로 등장시킨 영화는 사랑방과 안방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을 폐쇄적인 시공간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성격화한다.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사이의 서로에 대한 감정은 욕망을 매개로 드러나며 원작에 없는 식모와 계란장수의 로맨스를 어머니와 아저씨 사이의 로맨스와 교직시키는 구조를 통해 각 등장인물이 공간을 넘나들며 빚어내는 성격의 구성이 영화적 재미를 더한다. 영화는 주인공 남녀의 사랑의 성취나 전통의 승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욕망이 표현되고 그 욕망이 우회적으로 성취되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주목하면서 여전한 유교적 가부장 문화와 새롭게 부상하는 근대문화가 서로 경쟁하면서 협상하는 공간, 멜로드라마의 장소로 그녀를 안내한다.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 선 여성의 면모를 드러낸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 〈영자의 전성시대〉(김호선, 1975)

황혜진 \_ 목원대학교 영화영상학부 교수 whanghj1004@hanmail.net



호기심 어린 눈빛에 친진한 웃음기 가득한 영자는 시골에서 올라와 공업사 사장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있다. 공장에서 심부름을 온 노동자 창수는 영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1970년대 고향을 떠나 도시로 흘러 들어온 많은 이들처럼, 이들의 소망은 기술을 배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박한 그들의 꿈은 영자가 주인집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 가정부에서 소규모 공장 노동자로, 그 후 버스 차장에서 매춘부로 또다시 전락하면서 산산이 깨어지고 만다.

영자의 불행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끔찍한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서사에 주목하면 〈영자의 전성시대〉는 영자의 삶의 유전을 통해 개인적 불행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혹은 그 역방향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사회적인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또 시각화의 측면에서 이 영화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성영화들과 비교해, 여성의 몸을 단지 수동적으로 전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남성적 욕망에 기대면서도 혐오와 매혹을 동시에 생산해내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내용을 넘어서는 형식의 참신함을 보여준다.

## 〈바보선언〉(이장호, 1984)

김성욱 \_ 영화평론가 hulot67@gmail.com



때론 영화 작업의 불능이 이를 타개하는 교육지책의 저항적 미학을 만드는 법이다. 영화감독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이른바 영화의 ‘멸종 선언’으로 읽히지만 감독본인이 옥상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릴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닌 몸짓에 실린 에너지다. 그는 출구 없는 옥상에서 열린 광장과 세계로 몸을 내던지는데, 이 도약의 몸짓은 당대의 권력과 중력에 맞서는, 무엇보다 영화의 규범을 넘어서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이어지는 동철이의 이상한 나라의 모험은 당시 권력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활용한 섹스, 스크린, 스포츠의 3S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다. 〈바보선언〉의 탁월함은 무기력한 인물들이 벌이는 모험이 완전히 다른 반박의 역량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무성과 유성영화의 혼종, 전자음향과 국악의 소리들이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뒤섞인 영화. 무엇보다 영화 멸종에 대한 반박의 역량은 삼인조 어릿광대들이 벌이는 저항의 제스처에 있다. 때론 거친 생명력으로, 때론 음향적 몸짓으로, 때로는 제의적 몸짓으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사회적 제스처의 파괴적 역량은 내러티브의 비극을 넘어선다. 영화 멸종의 사회적 정황을 이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여 작가가 극한의 지점까지 영화를 끌고 가 파괴적인 이미지들을 만든 예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 만큼 고귀하고 독보적이다.

## 〈서편제〉(임권택, 1993)

김시무 \_ 부산국제영화제 전문위원 kimseemoo@hanmail.net



1993년에 개봉되어 그때까지 한국영화 가운데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서편제〉는 임권택 감독의 93번째 작품이다. 어느덧 임권택 감독의 스타일 가운데 하나로 굳어진 회상(flashback) 형식이 〈서편제〉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미학적 장치다.

〈서편제〉의 주요 등장인물은 퇴락한 명창 유봉(김명곤)과 그의 양녀 송화(오정해)와 양아들 동호(김규철)인데, 유봉은 판소리만을 최고로 여기며 어린 송화와 동호에게 소리를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다. 남다른 인연으로 맺어진 세 식구가 전국을 유랑하는데, 판소리에 대해 회의하던 동호가 유봉의 독선에 반항해 가출하면서 위기가 초래된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청년 동호가 누이 송화를 찾아 나선다. 결국 송화만이 체험하고 절감했던 한을 풀어가는 것이 〈서편제〉의 주된 내러티브가 된다. 여기서 감독은 득음(得音)의 경지를 위해 한(恨)마저 넘어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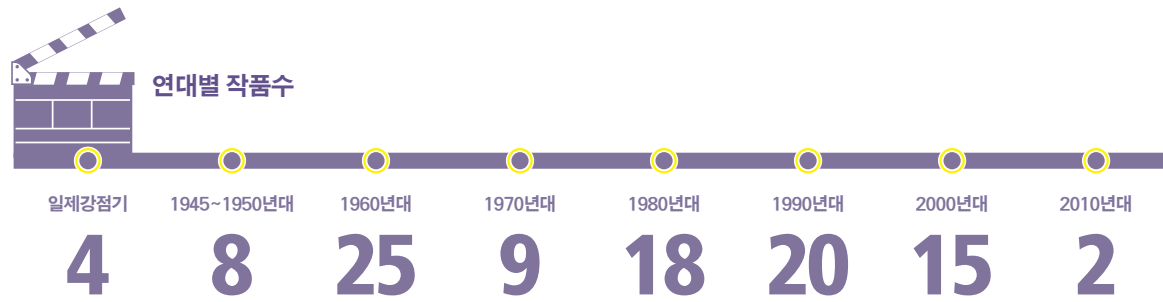
요컨대 이 영화에서 감독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따뜻한 인간애도 아니고, ‘예술을 위한 예술’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득음의 경지를 한의 승화와 동치시킴으로써 감독은 가슴 저미는 ‘사랑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한국영화 100여 년이 남긴  
별별 기록

## 숫자로 보는 한국영화 100선

유성관 \_ 자료서비스부 duane@koreafilm.or.kr



최다 작품을  
기록한 감독

가장 많은 영화를 목록에 올린 임권택 감독의  
7편은 다음과 같다. <썩코> <만다라> <길소뜸>  
<티켓> <씨받이> <서편제> <춘향전>

7  
임권택

6  
이만희

4  
김기영  
김수용  
신상옥  
이창호

3  
박광수  
박찬욱  
배창호  
봉준호  
유현목  
이두용  
이명세  
이창동  
장선우

가장 오래된 영화는 <청춘의 십자로>(1934),  
가장 최신 영화는 <피에타>(2012)



한국영화 100선에 선정된 작품 중 가장 많은 주요 배역을 맡은 배우는 김진규다. 그는 <피아골> <돈> <로맨스빠빠> 등 총 13편의 영화에서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배역을 맡은 배우는 12편의 영화에 출연한 안성기, 11편의 영화에 출연한 신성일, 역시 11편의 영화에 출연한 황정순이 뒤를 이었다. 10편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김승호, 다음으로는 7편의 영화에 출연한 한국영화 트로이카 최은희, 엄앵란, 도금봉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21세기 영화계에 흥행보증수표로 떠오른 송강호와 스크린을 장악한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신영균이 7편으로 한국영화 100선에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에 이름을 올렸다.

(기준: KMDb 크레딧 상 주요등장인물 5명까지 한정)



**장르별 작품수**

53 드라마  
27 멜로드라마  
18 사회물(경향)  
11 문예  
10 미스터리, 반공/분단  
9 액션, 코메디  
8 가족  
7 시대극/사극  
6 청춘영화



'소설 원작'을 제외하고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들이 다소 험악한데, 그중에서도 TOP3라 할 수 있는 '불륜' '살인' '시체'를 모두 포함하는 영화들은 다음과 같다. <하녀> <마의 계단> <화녀>. 키워드 통계는 KMDb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4 한국영화 100선을  
수놓은 감독들

## 임권택과 이만희, 거장을 말한다

이지윤\_연구부 wagahai@koreafilm.or.kr

한국영화 100선에 오른 작품들을 감독별로 살펴보는 것은 때때로 유의미하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감독론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를 수도 있겠으나, 감독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영화 100선을 선정한 평단과 학계의 시각, 더 나아가 한국영화를 바라보는 지금의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과 필자의 부족한 역량을 탓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유보하고, 100선에 가장 많은 작품을 올린 임권택 감독과 이만희 감독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적인 것을 넘어 영화 보편의 가치를 탐색하는 감독, 임권택**  
한국영화 100선 목록에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 7편으로 최다 선정 기록을 세웠다. <썩코>(1980) <만다라>(1981) <길소뜸>(1985) <티켓>(1986) <씨받이>(1986) <서편제>(1993) <춘향뎌>(2000)이 그것. 특히 임권택 감독의 전제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그가 국제영화제 등에서 명성을 알리기 시작한 1980년대 작품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임권택 감독은 1956년 정창화 감독의 <장화홍련전> 제작부

종종 임권택 감독의 작품 세계는 '전통' 혹은 '한'이라는 화두 안으로 구속되는데, 이번 한국영화 100선에 선정된 그의 작품 목록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제한적인 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로 영화계에 입문해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연출 데뷔를 했다. 그는 1960년대에는 주로 사극과 액션영화에서 작업 감독으로 작품에 임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액션, 무협, 스릴러, 코미디, 멜로드라마 등의 거의 모든 장르를 연출하며 연출 노하우를 습득했다. 임권택 감독 스스로가 말하듯,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변화 지점은 <잡초>(1973)부터라 할 수 있다. 임권택 감독은 처음으로 작가적 자의식을 투영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반공영화, 세마물 영화, '우수영화'용 영화 등을 제작하며 1970년대를 버텼다고 한다.<sup>1)</sup>

임권택 감독의 작가적 면모가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그는 <왕십리>(1976) 이후 "내 영화가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하는데, 1980년대 무렵부터는 <죽보>(1978) <썩코> <만다라> 등의 굵직한 작품들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번 100선에 포함된 그의 작품 7편 중 제작 연도가 가장 이른 작품은 <썩코>다. 애초 '우수영화' 선정용 반공영화라는 외투를 입고 제작되었지만, 분단영화에 더 가까운 이 영화는 이념 대립의 덧없음과 무상함의 감상을 건드린다. 이후 임권택 감독은 <만다라>가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에 대한 해외 영화제의 관심은 계속되어 <씨받이>는 베니스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취화선>(2002)은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종종 임권택 감독의 작품 세계는 '전통' 혹은 '한'이라는 화두 안으로 구속되는데, 이번 한국영화 100선에 선정된 그의 작품 목록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제한적인 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단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 <썩코>와 <길소뜸>을 비롯해 사회성 짙은 <티켓> 역시 100선의 목록을 수놓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임권택 감독의 1960, 70년대 장르 영화에 대한 재조명 현상이 일고 있는 추세에서 그의 장르 영화들이 100선 목록에 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100선으로 선정된 <씨받이>와 <서편제> <춘향뎌> 등, '한'과 '소리'라는 한국적인 소재를 차용한 그의 영화들 역시 비단 해외 영화제 서킷에서 유통될 수 있는 동양적 소재의 이점을 넘어 그의 영상 미학을 한껏 뽐내는 작품들이다. 일례로 임권택 감독이 <춘향뎌>에서 보여준 소리를 영



<장군의 아들3> 촬영 당시 임권택 감독

상화하는 기법, (영상에 소리를 기입하는 대신) 소리에 영상을 기입하는 방식은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아닐까 한다.

###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정의 휴머니스트, 이만희

임권택 감독 다음으로 많은 선정 편수를 기록한 감독은 이만희 감독. 이만희 감독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마의 계단>(1964) <검은 머리>(1964) <귀로>(1967) <휴일>(1968) <삼포가는 길>(1975) 등, 총 6편의 작품을 100선 목록에 올렸는데, 이를 통해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과 2006년 한국영상자료원 전작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그에 대한 평단과 연구진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만희 감독은 1961년 <주마등>(1월 개봉)과 <불효자>(10월 개봉)로 감독 데뷔를 했다. 100선에 포함된 그의 작품 중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그의 여섯 번째 연출작이다. 1963년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해라고도 기록되는데, 이는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그해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100선으로 뽑힌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스펙터클한 전쟁 장면, 해병대원들의 전우에 넘치는 휴머니즘을 탁월하게 연출한 것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한편 100선으로 선정된 <마의 계단>과 <검은 머리>는 한국





〈귀로〉(이만희, 1967)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촬영 현장의 이만희 감독(좌)

스릴러와 호러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이 개봉된 1964년 한 해 동안 이만희 감독의 연출작이 무려 6편이나 개봉되었다는 사실이 지금으로서는 가히 놀라울 뿐이다. 이만희 감독은 이 해에 〈묘향비곡〉(1월 1일 개봉)부터 〈협박자〉(9월 9일 개봉)까지 여섯 편의 영화를 발표했고, 그중에서도 7월에만 〈추격자〉(7월 9일 개봉)와 〈마의 계단〉(7월 10일 개봉), 〈검은 머리〉(7월 31일 개봉) 등 3편의 작품을 연이어 발표했다.<sup>2)</sup> 물론 이 시기 다작 연출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는 해도(어디 이만희 감독뿐이었을까만, 더욱이 그의 작품 〈귀로〉가 개봉한 1967년에는 심지어 10편의 작품이 개봉되기도 했다), 한 감독의 작품이 한 달 동안 연이어 3편씩이나 개봉됐다는 사실은 흥행에서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한 여성의 내면을 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정교하게 묘사한 〈귀로〉를 비롯해, 가난한 연인들의 하루를 우울한 터치로 그려낸 〈휴일〉 역시 한국영화 100선에 선정되었다. 특히 〈휴일〉은 제작 당시 검열 문제로 끝내 개봉되지 못했는데,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백결에 따르면, 주인공 신성일이 마지막에 자원입대하는 장면을 삽입하면 검열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당국의 회유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sup>3)</sup> 결국 이 영화는 끝내 개봉되지 못했고,

2005년에 이르러서야 영상자료원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었다.

한편 그의 마지막 작품인 〈삼포가는 길〉 역시 이번 100선에 포함되었다. 이만희 감독은 이 작품을 편집하던 중 세상을 떠났고, 이 영화는 그가 별세한 후에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었다. 그런 탓에 미완의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유작인 때문인지, 백화(문숙)의 천진한 얼굴, 정 씨(김진규)의 넉넉한 웃음, 영달(백일섭)의 푸근한 인정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 작품이다. ★

1. 정성일·임권택 대담, 「임권택이 임권택을 말한다」, 현실문화, 2003; 한국영상자료원 발간 〈임권택 컬렉션〉 DVD 박스세트 소책자, 2012.

2. 한국영상자료원 편, 「한국영화 100선: 〈청춘의 십자로〉에서 〈피에타〉까지」, 한국영상자료원, 2013.

3. 한국영상자료원 편, 〈영화천재 이만희〉, 한국영상자료원, 2006.

최다 출연 배우로 보는  
한국영화 100선

## 영화의 기호이자 정신, 영화 속 배우들

조준형\_연구부 zeitsein@koreafilm.or.kr



〈자유부인〉(한형모, 1956)에 출연한 김진규



영화 촬영 현장의 안성기

이번 한국영화 100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 요소는 배우다.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라고들 하지만, 관객에게는 감독보다는 배우가 더 각인되기 마련이다. 냉정하게 보자면 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캐릭터로서 존재할 뿐이지만, 몇몇 배우는 그 캐릭터를 자신의 신체에 육화하고, 마침내 한 사회의 욕망과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호이자 이미지가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몇몇 배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론하는 배우는 많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의 순으로 뽑았다. 기준이 된 배우들의 출연작 수는 단독 및 공동 주연 혹은 비중 있는 조연(출연 비중상 대략 5명 이내)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을 우선 언급해두어야겠다.

### 시대의 무력을 짊어진 젊은 가장, 김진규

이번 100선 목록에 출연 영화를 가장 많이 올린 배우는 김진규다. 김진규는 1955년 〈피아골〉에서 1975년 〈삼포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에 걸쳐 100선 중 13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김진규는 진중하고 지적이며, 신사적인 이미지로 당대 관객에게 어필했다. 굳이 배우의 역할을 가족 구성원으로 비유하자면(이 비유는 이 글에서 계속 활용될 것인데, 이는 단순히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1960~70년대 주요 배우들의 역할이 많은 영화에서 실제 가족 구성원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승호보다는 젊고 신성일보다는 연배가 있었던 그에게 배당된 역할은 젊은 가장의 자리였다. 또한 진중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이면에는 우유부단함이나 고뇌, 무력함이 묻어나기도 했다. 이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신영균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결국 그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다소 우유부단하고 고뇌하는 지식인(가장)인 셈이다. 신성일이나 신영균 같은 배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연 편수가 적음에도 100선에 그가 출연한 영화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번 100선에 상대적으로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영화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 코리안 뉴웨이브, 안성기

두 번째로 많은 영화를 100선 목록에 올린 배우는 안성기로, 아역으로 출연한 〈하녀〉(김기영, 1960)를 포함해 12편





〈맨발의 청춘〉(김기덕, 1964)의 신성일



지난 2월 타계한 고(故) 황정순



〈괴물〉(봉준호, 2006)의 송강호

의 영화에 출연했다. 안성기는 1950년대 말 데뷔해 1960년대 초까지 아역배우로 활동하다가 영화계를 떠났다. 대학 졸업과 군 생활을 마친 1977년 영화계에 복귀해 몇몇 영화에 출연했지만, 명실상부한 복귀작은 〈바람불어 좋은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중후반까지 임권택, 이창호와 (특히) 배창호 등 1980년대 대표적인 감독과 함께 작업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박광수, 이명세 등 소위 '코리안 뉴웨이브' 감독들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순박한 시골 청년, 이직한 지식인, 냉정한 살인자, 히스테릭한 스토크, 야심에 찬 회사원, 부패하고 코믹한 경찰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냈다. 캐릭터와 이미지가 비교적 고정되었던 1960~70년대의 대배우들과 달리, 한국영화계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성격을 연기할 수 있는 주연급 배우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그가 전통적인 미남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영화의 제작 편수가 줄고, 배우의 겹치기 출연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12편의 작품을 100선에 올렸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한 명의 배우가 아니라 시대의 얼굴이었음을 보여준다.

#### 한국의 제임스 딘, 신성일

세 번째로 많은 영화를 100선 목록에 올린 배우는 11편의 신성일이다. 신성일에게는 아우라가 있다. 젊은 청년의 모습일 때 그는 한국의 제임스 딘이었다(의심스럽다면 〈맨발의 청춘〉과 〈초우〉를 보라). 우수와 반항기가 공존하는 그의 마스크는 나이가 들어 더 원숙해졌다. 반항과 객기가 사라진 대신 뿔날콜리가 짙어진 그의 얼굴은 1970년대 소위 '호스텔스' 영화에서 방황하는 여성들을 보듬어 안는 삶에 지친 중년 남성에게 잘 어울렸다.

#### 어머니의 발견, 황정순

여성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리스트에 올린 배우는 지난 2월 17일 작고한 11편의 황정순이다. 최은희, 김지미, 엄앵란, 1960~70년대 트로이카 등 쟁쟁한 여배우들을 제치고 황정순이 1위에 올랐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느껴진다. 그녀는 물론 '원톱'이나 '투톱'의 주연 배우는 아니었다. 그러나 가족이 등장하는 수많은 영화에서 그녀는 대체 불가능한 어머니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녀가 가진 토속적이고 인자한 이미지는 우리가 간직하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어울렸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한국의 어머니상을 만들어냈다. 물론 그녀가 맡은 어머니상이 온전히 인자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 이기적이고, 속 좁으며, 자식과 이웃에게 악다구니를 쓰고, 가족에게 상처받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가족 구성원, 나아가 역사적 비극과 스스로의 죽음까지도 감싸 안는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영화의 격이 달라진다. 황정순의 연기는 언제나 훌륭하지만 두세 작품은

고르다면 100선 내에서는 〈김약국집 딸들〉과 〈장마〉, 100선 밖에서는 〈육체의 고백〉(이봉래, 1964)이다.

#### 다양한 여성의 모습 최은희, 엄앵란, 도금봉

두 번째로 많은 영화를 100선 목록에 올린 여배우는 7편의 최은희, 엄앵란, 도금봉이다. 최은희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통해 황정순과는 또 다른 단아한 어머니상으로 각인되었지만, 실제 100선 작을 기준으로 할 때 오히려 딸의 역할이 더 많다. 만말로 출연했던 〈로맨스빠빠〉의 등장인물명 '음진'은 최은희의 대표적 이미지를 압축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지옥화〉의 악녀 쏘나와 같은 역할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최은희가 많은 가족영화에서 만딸의 역할을 맡았다면, 엄앵란은 막내딸 역할을 맡았다. 젊고 싱싱한, 도시적이고, 때로 반항적이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녀의 매력적인 이미지는 유독 막내아들 같은 캐릭터의 신성일과 잘 어울렸다. 엄앵란-신성일이라는 '세기의 커플'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맨발의 청춘〉에서 이 둘 간의 화학적 결합은 최고조에 달한다. 도금봉은 허장강과 함께 한국영화사의 가장 개성적인 조연이다. 그 '개성'이 많은 경우 '육욕의 화신' 혹은 악녀로 각인되었고, 실제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말해두고 싶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또 다른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주연작 〈도순이〉(박상호, 1963)가 100선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 우리 시대의 얼굴 송강호

마지막으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배우는 송강호다. 송강호를 언급하는 이유는 최소 100편이 넘는 필모그래피 중 10편 내외가 꼽힌 여타의 배우들에 비해 30편이 채 안 되는 출연작 중 무려 7편의 영화가 100선에 올랐기 때문이고, 동시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타율이 엄청나게 높은 배우다. 1997년 〈초록 물고기〉에서 삼류 건달로 출연했을 때 그는, 관객들이 정말 양아치가 출연했다고 착각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높은 캐릭터 일치율을 보여주었다. 이 될성부른 배우는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타의 추

종을 불허하는 티켓 파워까지 자랑한다.

그 외에도 10편의 영화를 올린 '영원한 아버지' 김승호, 스크린을 장악하는 호방한 카리스마와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었던 신영균(7편), 어머니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한은진(6편), 이만희의 페르소나 문정숙(5편), 신성일의 반항기와 안성기의 친근함을 동시에 가졌던 1980년대의 청춘 박중훈(5편), 1990년대 코리안 뉴웨이브의 또 다른 상징적 배우 문정근(4편)을 거론할 수 있겠다. ★

배우	편수	작품
김진규 (1923~ 1998)	13편	〈피아골〉 〈돈〉 〈로맨스빠빠〉 〈박서방〉 〈하녀〉 〈성춘향〉 〈오발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서울의 지붕밑〉 〈고려장〉 〈마의 계단〉 〈귀로〉 〈삼포가는 길〉
안성기 (1952~)	12편	〈하녀〉 〈바람불어 좋은날〉 〈만다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고방동네 사람들〉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칠수와 만수〉 〈개그맨〉 〈남부군〉 〈하얀전쟁〉 〈인정사정 불것없다〉
신성일 (1937~)	11편	〈로맨스빠빠〉 〈김약국집 딸들〉 〈혈맥〉 〈맨발의 청춘〉 〈초우〉 〈안개〉 〈장군의 수염〉 〈휴일〉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 〈길소뜸〉
황정순 (1925~)	11편	〈돈〉 〈박서방〉 〈마부〉 〈삼등과장〉 〈서울의 지붕밑〉 〈김약국집 딸들〉 〈혈맥〉 〈갯마을〉 〈산불〉 〈장마〉 〈피막〉
최은희 (1926~)	7편	〈마음의 고향〉 〈돈〉 〈지옥화〉 〈로맨스빠빠〉 〈성춘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서울의 지붕밑〉
엄앵란 (1936~)	7편	〈로맨스빠빠〉 〈박서방〉 〈하녀〉 〈마부〉 〈김약국의 딸들〉 〈혈맥〉 〈맨발의 청춘〉
도금봉 (1930~ 2009)	7편	〈로맨스빠빠〉 〈성춘향〉 〈삼등과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서울의 지붕밑〉 〈산불〉 〈영자의 전성시대〉
송강호 (1967~)	7편	〈넘버 3〉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복수는 나의 것〉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 관객이 뽑은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는?

지금까지 영화 전문가 62인이 선정한 '한국영화 100선'을 살펴봤었다. 그렇다면 2014년 한국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어떤 영화를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로 뽑을까?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영화 100선' 발표를 기념해, 지난 2월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영상자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객이 뽑은 역대 한국영화 BEST 10'을 선정했다. 이번 설문은 (지금까지 제작된 한국영화의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그리고 그 많은 작품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관계로) 전문가가 선정한 총 101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했다. 총 1462명이 선정한, 우리 관객들의 가슴 깊숙이 남아 있는 한국영화는 과연 어떤 작품인지 살펴보자.

**평단은 1960~70년대에, 관객은 1990~2000년대에 주목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문가가 뽑은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전문가가 선정한 '한국영화 100선'의 상위권에는 <자유부인> <마부>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등 1960~70년대 작품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객들이 주목한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 리스트에는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8월의 크리스마스> <박하사탕> 등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제작된 영화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평단과 관객의 시각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이 BEST 10 리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반관객이 1980년대 이전 영화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적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관객이 뽑은 역대 한국영화 BEST 10>

순위	작품명	작품정보	득표수
1	<살인의 추억>	봉준호, 2003	806표
2	<올드보이>	박찬욱, 2003	743표
3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1998	622표
4	<하녀>	김기영, 1960	608표
5	<공동경비구역 JSA>	박찬욱, 2000	512표
6	<박하사탕>	이창동, 1999	506표
8	<서편제>	임권택, 1993	502표
9	<괴물>	봉준호, 2006	468표
10	<오발탄>	유현목, 1961	400표

### 관객이 뽑은 최고의 한국영화,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 <8월의 크리스마스>

이번 설문에서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로 꼽힌 작품은 <살인의 추억>(봉준호, 2003, 806표)이다. 그다음은 <올드보이>(박찬욱, 2003, 743표)와 <8월의 크리스마스>(허진호, 1998, 622표)가 차지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가 선정한 순위(공동1위 <하녀> <오발탄> <바보들의 행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관객이 최고로 꼽은 3편의 영화는 개봉 당시에도 관객과 평단의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도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어온,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한국영화 걸작임에는 틀림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는 지난 2013년 개봉 10주년을 맞아 재개봉과 특별상영회를 통해 관객들에게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고, 3위를 차지한 <8월의 크리스마스> 역시 최근 1990년대 문화에 대한 향수가 대중을 자극하면서 재조명되기도 했다. (실제로 <8월의 크리스마스>는 지난 2012년 말 <영화천국> 28호에서 선정한 '다시 보고 싶은 1990년대 영화'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트렌드가 이번 설문 순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역시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그리고 또 역시 <하녀>와 <오발탄>

이번 BEST 10에는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 각각 2편씩 포함되었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1위)과 <괴물>(9위)로,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2위)와 <공동경비구역 JSA>(5위)로, 이창동 감독은 <박하사탕> <밀양>(공동 6위)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

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감독들이 여전히 한국영화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10위권에는 <하녀>(김기영)와 <오발탄>(유현목)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 설문을 통해 이 두 작품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관객과 평단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보너스 순위를 공개한다. '관객이 뽑은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 BEST 10에는 아쉽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상위 10편만큼이나 쟁쟁한 작품들이 11~20위에 포진해 있다. 이 순위에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바보들의 행진>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등 1960~80년대 작품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개봉 당시 흥행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 작품성을 인정받아 재조명된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와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 각각 11위와 20위에 오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BEST 10에 각각 두 편씩 이름을 올린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 11~20위 사이에 각각 1편이 추가되어 20위 내에 이 세 감독의 작품이 3편씩 사이좋게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설문결과 자세히 보기

### <관객이 뽑은 역대 한국영화 BEST 11~20>

순위	작품명	작품정보	득표수
11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2003	366표
12	<바보들의 행진>	하길종, 1975	343표
13	<시>	이창동, 2010	334표
14	<마더>	봉준호, 2009	333표
15	<고래사냥>	배창호, 1984	317표
16	<복수는 나의 것>	박찬욱, 2002	308표
17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신상옥, 1961	298표
18	<쉬리>	강제규, 1999	285표
19	<별들의 고향>	이창호, 1974	268표
20	<가족의 탄생>	김태용, 2006	234표



〈오발탄〉 디지털 복원,  
〈하녀〉 〈바보들의 행진〉 블루레이 출시

## 공동1위 3편, 대중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다!

민병현\_경영기획부 min@koreafilm.or.kr

영상자료원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영화 100선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로 선정된 3편의 영화(〈하녀〉 〈오발탄〉 〈바보들의 행진〉)는 대중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영문 자막이 깔려 있는 프린트가 유일본이었던 〈오발탄〉은 디지털 복원으로 재탄생하고, 〈하녀〉와 〈바보들의 행진〉은 영상자료원이 2014년 야심 차게 도전하는 블루레이 출시 시범 작품으로 선정된 것이다. 사실 이 세 편의 영화는 ‘한국영화 100선의 1위’라는 타이틀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대를 아우르며 걸작으로 꾸준히 추앙받아온 작품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디지털 복원과 블루레이 출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번 100선 선정을 계기로 고전 걸작들이 관객과 만나는, 좀 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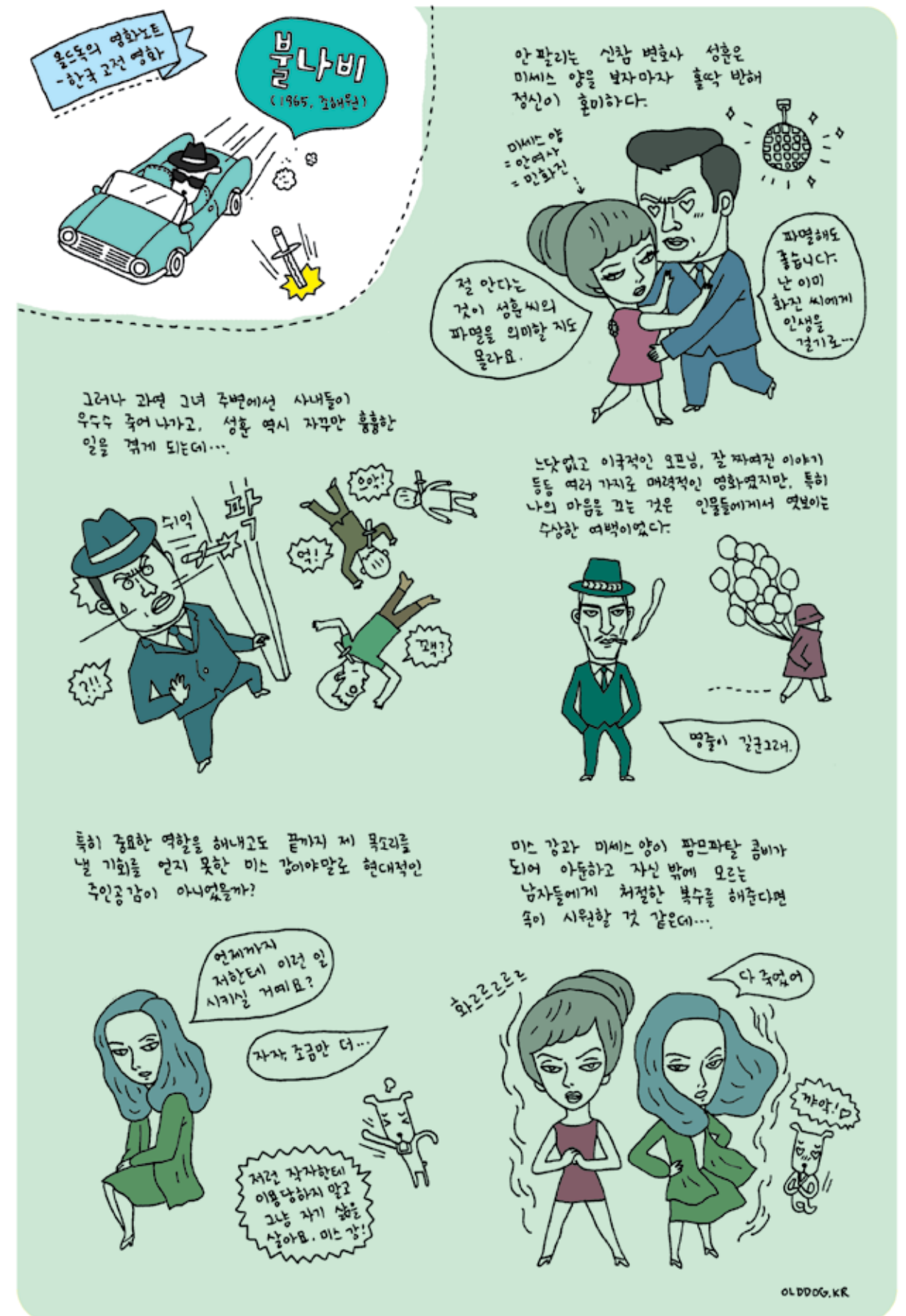
### 〈오발탄〉 디지털 복원으로 재탄생하다

〈오발탄〉은 아쉽게도 원본(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영상자료원이 유일하게 보유 중인 이 영화의 필름은 제7회 샌프란시스코영화제(1963)에 출품된 35mm 프린트 필름인데, 1980년대 초 수소문 끝에 필름을 발견했을 당시 스크래치로 인한 화면 손상이 심했고, 해외 영화제 상영 버전이라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어 복원이 시급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영화의 디지털 복원이 미루어진 이유는 ‘영어 자막 제거 작업’의 기술적 어려움과 그

비용 때문이었다. 화면에서 자막을 지우는 작업은 현재의 VFX(Visual Effects, 시각효과) 기술로도 꽤 공이 많이 드는 어려운 작업이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다. 지난 2009년 영상자료원이 디지털 복원한 〈하녀〉가 총 5분 분량의 자막을 제거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된 전례로 봤을 때, 전체 107분 중 39분 분량이 자막으로 덮여 있는 〈오발탄〉 복원 작업은 그야말로 대대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다. 영상자료원은 현재 이 영화의 디지털 심화 복원과 영문 자막 전체의 제거 작업에 5억여 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기관 창립 40주년을 맞아 숙원 사업이던 〈오발탄〉의 디지털 복원을 추진한다. 먼저 이미 확보한 국고 1억 5000만 원으로 디지털 복원과 일부 자막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이후 추가 비용은 관련 기업 등의 후원과 협찬을 받아 해결할 예정이다. 현재 복원 완료 시점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던가? 깨끗한 화질의 〈오발탄〉을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 〈하녀〉 〈바보들의 행진〉 블루레이 출시

지난 2004년 시작한 한국고전영화 DVD 출시 사업이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총 73편의 주요 한국 고전영화가 DVD로 제작, 출시되었는데, DVD 시장의 축소와 함께 최신 개봉작마저 DVD로 만나기 어려운 요즈음, 영상자료원의 한국고전영화 DVD 컬렉션은 우리 영화의 전통과 미학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 한국영화 팬들, 연구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상자료원 한국고전영화 DVD 컬렉션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최근 DVD 구매자 층이 블루레이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상황에 발맞춰 영상자료원 역시 블루레이 타이틀 2종을 시범적으로 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대상은 한국영화 100선의 공동 1위에 오른 〈하녀〉와 〈바보들의 행진〉이다. 〈하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DVD로 제작되었는데, 그해 DVD가 절판되면서 ‘김기영 파워’를 새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30대에 요절한 천재 감독 하길중 감독의 대표작 〈바보들의 행진〉 역시 1970년대 청년문화를 기억하는 많은 영화 팬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작품이다. 두 편의 블루레이는 오는 11월에 시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





## 한국영상자료원, 김광수 감독의 1968년작 <가요 반세기> 발굴, 수집 반세기 한국 대중가요사를 정리한 기록영화 찾았다!

민병현\_경영기획부 min@koreafilm.or.kr



<가요 반세기> 개봉 당시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은 1960년대 후반까지 반세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김광수 감독의 1968년 다큐멘터리 <가요 반세기>(컬러, 오리지널 네거티브)를 발굴, 수집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뿐 아니라 깨끗한 컬러 화질로 그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사는 물론 대중가요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요 반세기> 어떤 영화인가?

신영문화영화사가 제작, 1968년 국도극장에서 개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가요 반세기>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 대중가요 반세기를 집약한 기록영화다. 이 영화는 세련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했으며 영화배우 김진규의 진행으로 한국 대중가요사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어, 대중가요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김광수와 음악감독을 맡은 이봉조는 각각 KBS와 TBC의 악단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는데, 당시 양대 방송사의 핵심 음악인이 영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영화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고, 이후 만들어진 일련의 음악 관련 영상, 영화들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가요 반세기> 수집 경위

대중문화 평론가 이영미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쇼·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과 공연, 그리고 음반 분야에서 '가요 반세기'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형식의 콘텐츠가 양산되었는데, 이번에 발굴한 <가요 반세기> 역시 그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된 기록영화다. 이 영화는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신문 기사와 일부 기록 외에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태양이 뜨거울 때'를 부른 패티김(위), '마음이 고와야지'를 부른 남진(아래)

실정이었는데, 지난 2012년 8월 이 영화의 제작부장을 담당했던 박웅일 씨가 영화 필름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1년여에 걸친 설득과 협의 과정을 거쳐 한국영상자료원이 해당 영화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굴한 <가요 반세기>는 복사본 필름(Print 프린트 필름)이 아닌 원본 필름(Original Negative 오리지널 네거티브)의 형태로 발굴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데, 사운드는 물론 컬러 화질 역시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별도의 복원 과정 없이 디지털화 작업만 거친 뒤 극장 상영은 물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sup>

### <가요 반세기>의 사료적 가치

#### ① 1960년대 최고의 가수들이 총출동한 한국 대중음악에 관한 기록영화

이번에 발굴한 <가요 반세기>에서는 1968년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타향살이'의 고복수, '나그네 설움'의 백년설, '신라의 달밤'의 현인 등 대중가요 1세대 원로 가수들뿐 아니라, 당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최희준('팔도강산'), 현미('몽땅 내 사랑'), 정훈희('안개'), 윤복희('웃는 얼굴 다정해 도'), 이미자('섬마을 선생님'), 패티김('태양이 뜨거울 때'), 남진('마음이 고와야지') 등 20여 명의 가수가 그들의 히트곡과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가요를 라이브 공연 혹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들려준다. 그리고 영화 제작 당시 이미 고인이 된 남인수와 이난영의 생전 모습이 영상으로 잠시 비춰지기도 한다. 영화에는 총 25곡이 삽입되어 있는데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기법과 다양한 형식의 가요 공연을 보여주는 고자 하는 감독의 노력이 엿보인다. 아울러 가수 고복수의 데뷔 시절 좌담(인터뷰), 구봉서와 후라이보이 곡규석의 만담 등이 삽





192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 대중가요 반세기를 집약한 〈가요 반세기〉는 한국 대중가요사의 흐름 뿐만 아니라 전후 시대적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요 반세기〉 촬영 당시 목포항 전경, 백년설, 촬영 당시 KBS 방송국 편집실 내부 전경, 최희준

입되어 있으며, 광복 후 38선과 6·25전쟁 당시 영상, 1960년대 서울 소공동과 부산항의 풍경 등 당시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영상도 볼 수 있다.

## ② 기록 보존이 취약한 한국 대중음악 영상의 보고

〈가요 반세기〉에 출연한 가수와 그들의 공연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무척 희귀한 자료다. 1962년 본격적인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개막된 후 1964년 방송 프로그램의 기록을 위한 녹화기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가요 반세기〉와 유사한 영상이 방송사와 개인 수집가들에게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녹화 테이프의 가격이 매우 비싸 녹화된 영상을 지우고 재활용하는 방식이 흔했기 때문에, 유사한 영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다수 가요 관계자의 의견이다. 또한 〈가요 반세기〉에 삽입된 음악 영상이 대부분이 컬러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더욱 높다. 아울러 미8군 쇼 무대 출신 가수인 최희준, 위키리, 유주용, 한명숙, 현미, 이금희의 전성기 모습, 현재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서울대 음대 출신으로 당시 조영남과 함께 청춘스타로 주목을 받았던 최영희의 모습, 1970년 제1회 동경국제가요제에 작곡가 이봉조와 함께 참가해 한국 가수 최초로 국제가요제 수



〈가요 반세기〉 필름은 무엇보다도 1960년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깨끗한 컬러 화질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빛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진규, 이미자, 윤복희, 현미의 공연 모습

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정훈희의 데뷔 시절 모습, 당대 한국 사회에 패션 열풍을 일으킨 화제의 미니스커트 차림 윤복희의 엔딩 장면 등이 영화에 포함되어, 〈가요 반세기〉는 유독 기록 보존이 취약한 한국 대중음악계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깨끗한 화질의 원본 필름,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

이번에 발굴된 〈가요 반세기〉는 원본 필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보통 국내외에 산재한 오래된 영화 필름을 입수하면, 훼손으로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복원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가요 반세기〉는 깨끗한 화질로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사운드 필름도 함께 발굴되어 특별한 복원 과정 없이 극장 상영과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영상자료원은 〈가요 반세기〉의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시네마테크KOFA에서 영화 및 음악 관계자 초청 상영회와 일반 상영회를 열 예정이다. ★

1. 원본 필름(Original Negative)의 경우, 영상 필름과 사운드 필름이 분리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외부에 방치될 경우 영상 필름만 남고 사운드 필름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지난 2012년 한국영상자료원이 홍콩에서 발굴한 최초의 한·홍 합작영화 〈이국정원〉과 6·25전쟁 당시 제작된 14편의 영화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2012년 발굴한 〈태양의 거리〉(2012년 발굴) 역시 사운드가 유실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 이 봄, 그린라이트를 켜라!

정민화\_시네마테크부 minhwa@koreafilm.or.kr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에반게리온 서/파>, 실연의 아이콘인 '신카이 마코토 감독전'으로 솔로의 헛헛한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친척들의 잔소리에 시달려야 하는 명절 연휴마다 피난처가 되어 주며 자타공인 솔로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시네마테크KOFA. 하지만 2014년 3월,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과 화이트데이를 맞아 시네마테크KOFA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바로 외로운 싱글의 척박한 가슴에 그린라이트를 켜 줄 연애포치를 초빙했다. 우선, 그린라이트를 켜기 위한 워밍업으로 <어페어 투 리멤버>(레오 맥케리, 1957)부터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롭 라이너, 1989) <노팅힐>(로저 미첼, 1999) <레터스 투 줄리엣>(게리 위닉, 2010) 등 달달한 감수성을 다시금 활활 피어줄 로맨틱 영화를 포진했다. 특히 <어페어 투 리멤버>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노라 애프론, 1993)의 맥 라이언과 그 친구들이 "아! 저런 게 사랑이지"라며 열광하던 영화로, 로맨틱영화의 고전 중의 고전. 이번 '그린라이트를 켜라!'에서 두 영화를 한 자리에서

## 영원한 어머니, 고(故) 황정순을 추억하다

민병현\_경영기획부 min@koreafilm.or.kr



지난 2월 17일, 영화배우 황정순이 타계했다. 1925년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한 황정순은 1940년 15세의 나이로 동양극장 전속극단인 '청춘좌'에 입단했으며, 1941년 <그대와 나>(허영)로 영화에 데뷔했다. 이후 377편(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www.kmdb.or.kr) 기준)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관객들에게 '1960~70년대 한국의 대표 어머니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오는 4월, 시네마테크KOFA에서 '고(故) 황정순 추모 특별전'을 개최하고, 고인의 대표작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으니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가 될 것이다. 또, 이 로맨틱 대열에서 노년의 사랑(<아무르>(미카엘 하네케, 2012))과 동성 간의 사랑(<브로크백마운틴>(이안, 2005))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렇듯 그린라이트를 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포치'를 모실 차례! <남자사용설명서>(이원석, 2012) <전차남>(무라카미 마사노리, 2005)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켄 파피스, 2009) <시라노: 연애조작단>(김현석, 2010)이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연애 기술을 전수하니 요점 정리를 위한 필가용 노트는 필수품이다. 벚꽃이 흩날리는 이 봄, 아직도 그린라이트를 켜지 못해 여전히 마음은 겨울에 머물러 있는 싱글과 이미 그린라이트 켜고 화창한 봄날을 만끽할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커플 모두, 3월 시네마테크KOFA에서 로맨틱영화 한 편 보고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상암동에서 봄 산책 어떠신가요? ★



<브로크백마운틴>(이안, 2005)



## 바질 디어든의 <희생자Victim>와 로버트 알트만의 <퀸테트Quintet>

오성지\_시네마테크부 kollivitz@koreafilm.or.kr

나는 간혹 아니 자주 책이나 CD의 표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덜컥 구매를 한다. DVD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구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가면 DVD 가게에 가 내게 정보가 전혀 없는 영화(극장에서 영화 프로그램을 담당할 지 오래되었지만 사실 나는 흔히 이야기하는 시네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영화감독도, 영화도 많다) DVD를 단지 재킷의 디자인이 멋있다고 산다. 로버트 알트만의 <퀸테트> DVD는 표지의 폴 뉴먼의 비장한 얼굴과 "Ein Mann gegen die ganze Welt (세상에 대항하는 한 사나이?)"라는 문구 때문에 구입했다. 물론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이니 영화가 시쳇말로 아무리 후지다 하더라도 본전은 하겠지 싶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눈과 빙하로 덮인 세상의 끝자락을 폴 뉴먼이 아내랑 걷고 있다. 이거 <설국열차>? 영화가 20여 분 접어들면 인류 문명이 파괴되어 개들이 인간의 시체를 먹고, 폴 뉴먼의 임신한 아내를 본 무리들이 이렇게 어린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을 본 지 오래되었다면서 그녀의 몸을 만지려 한다. 아, 이거 알폰소 쿠아론의 <칠드런 오브 맨>? 그러나 영화는 나의 기대와 다른 쪽으로 흐르는데 이 묘한 분위기는 무엇이며, 희망을 잃은 채 권태에 시달리는 이들이 즐기는 퀸테트라는 난해한 게임은 무엇이란 말인가? 개봉 당시 영화의 느린 속도와 모호한 줄거리로 인해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해 알트만의 가장 불운한 영화가 되었다는데, 내심 그럴만하다 싶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무언가가 있어라고 치솟는 '케지노 칸(형사의 감)'이 아닌 프로그래머의 감! (요즘 일본 드라마를 너무 보고 있다) 바질 디어든의 <희생자>(1961) 역시 더크 보가드가 울분을 터뜨리는 모습에 혹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알트만의 불가해한 <퀸테트>에 비해 논리 정연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흑백의 시네마토그래피 화면에 짙어져 숨 막히는 듯한 1960년대 초반 런던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사회적 터부였던



<퀸테트Quintet>(로버트 알트만, 1979) DVD 표지

동성애를 다루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하다. 더크 보가드의 열연과 더불어 추리물이 주는 긴장감과 흥미진진함, 동성애를 바라보는 다층적인 시각이 돋보인다. 부끄럽게도 사실 이 두 작품 다 '세상에 대항하는 한 남자'라는 주제에 이끌리기도 했지만 상영 기회도 드물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시네필인 지인에게 물어보니 아니 이것도 몰라 하는 얼굴을 하면서 "옛날에 EBS에서 상영했어요. 그리고 알트만 영화는 <퀸테트 살인 게임>으로 비디오도 나왔다고요." 참으로 프로그래머란 직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솔직히 나 이 직함 매우 싫어한다) 그래도 우리 극장에서 보면 분명 쪼그만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무지무지 다를 거다! ★



## 일본영화계의 ‘희극지왕’ 가와시마 유조 특별전

구민아\_ 메이지 학원 대학교 klugmina@gmail.com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시네마테크KOFA에서  
한국영상자료원, 일본국립필름센터, 일본국제교류기금 공동  
주최로 가와시마 유조 감독 특별전이 열린다. 메이지 학원  
대학에서 가와시마 유조 감독을 주제로 논문을 쓴 구민아의 글로  
국내에 아직 낯선 감독 가와시마 유조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일본 희극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막말태양전〉(1957)의 감독이자 일본영화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가와시마 유조 감독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다. 그런 그를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가 〈나라이마 부시코〉(1982)와 칸국제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스승이라는 것이다. 가와시마와 이마무라의 인연은 그들이 처음으로 몸담은 쇼치쿠 시절부터 시작해, 가와시마가 닛카쓰에 머무른 3년간 이마무라는 가와시마의 조감독으로 제작에 참여하며, 특히 〈풍선〉(1956)과 〈막말태양전〉에서는 가와시마와 공동으로 각본 집필에도 참여한다. 이마무라는 만년에 가와시마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마무라의 초기 작품에 보이는 유머는 ‘경조부박’한 가와시마의 작품을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이후 이마무라는 스승과는 매우 대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간다. 아오모리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가와시마가 세련되고 도회적인 감각을 추구한 것에 반해, 도쿄에서 태어난 이마무라가 토속적인 정념에 집중해간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가와시마는 1918년 아오모리에서 상가의 삼남으로 태어난다. 근친혼에 의한 유전장애로 인해 형제들도 어린 나이에 연달아 숨을 거두고, 가와시마도 이후 루게릭병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돼간다. 그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를 증오했으며, 문화시설이라고는 영화관밖에 없는 시골 마을에서 문학청년이 되고, 영화광이 되는 것으로 이에 저항했다. 고향을 떠난 이후 45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기까지 가와시마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

향이 어디인지, 자신의 몸이 왜 마비돼가고 있는지 털어놓지 않았다고 한다.

### 희극이라는 가면 뒤의 어두운 표정

가와시마는 쇼치쿠에서 1944년 〈돌아온 남자〉로 데뷔한 후 19년간 4곳의 회사를 전전하며 51편의 작품을 제작한다. 데뷔작인 〈돌아온 남자〉는 전시 중에 개봉한 유일한 작품으로, 전장에서 귀환한 청년의 1주일간 여정을 그린 희극이다. 1944년이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던 시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작품은 그러한 역사적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암울한 전시기에 굳이 경조부박한 작품으로 완성한 점,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익센트릭한 인물은 그의 영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1954년 닛카쓰로 이적한 이후 가와시마는 3년간 9편의 작품을 남긴다. 특히 아이를 ‘집’에 비유해 당시의 전후 베이비 붐을 풍자한 〈사랑의 수화물〉(1955), 가와시마 스스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손꼽는 〈스자키 파라다이스〉(1956), 일본의 전통 예능 라쿠고를 제재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코믹하게 그려낸 〈막말태양전〉(1957)은 어느 작품이고 그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는 걸작이다. 특히 〈막말태양전〉의 사헤이지는 가와시마의 초상이라고 일컬어지곤 하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사헤이지가 거창한 기구를 들여놓고 약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병으로 몸이 점점 마비돼가던 가와시마가 매일 수십 알의 약을 복용하며 자신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 싸운 치열한 저항을 연상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유곽을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 사헤이지는 등장인물을 중개하며, 유곽이라는 공간에 모인 인간들의 근저에 있는 욕망을 폭로해가는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향한 사헤이지의 차가운 시선은 가와시마가 현실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의 발로다. 이렇듯 희극이라는 가면 뒤에 존재하는 어두운 표정은 가와시마의 희극을 특징짓는 요소다.



〈막말태양전〉(가와시마 유조, 1957)

### 일본영화계의 이단아, 끊임없이 탈주하는 영화의 문법

〈막말태양전〉 이후 도쿄 산하의 도쿄영화사로 이적한 가와시마가 닛카쓰에서 선보였던 뛰어난 재기를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도쿄영화 재직 중에 다이에이에서 찍은 3편의 작품(〈여자는 두 번 산다〉(1961) 〈기러기의 절〉(1962) 〈정숙한 짐승〉(1962))은 일본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이다. 그중에서도 〈정숙한 짐승〉은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단지의 일실에 살고 있는 4인 가족의 사기, 횡령 등의 ‘비일상적’인 만행을 지극히 ‘일상적’인 터치로 그려낸 블랙코미디인데, 단지의 일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다채로운 앵글로 담아내고 있는 점 또한 인상적이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전후 일본의 인간상을 그려낸 이 작품에서 단지는 물질과 욕망이 가득한 ‘현대’의 공간으로 변모해간다. 사카구치 안고의 ‘타락론’을 참고하자면, 단지의 일실은 ‘역사의 장치’에 의해 가공된 공간이며, 영화에 등장하는 익센트릭한 인물은 ‘역사의 장치’에 의해 ‘타락’한 인물이다.

〈막말태양전〉의 사헤이지를 비롯해, 가와시마의 인물들은 자신이 머무르던 곳에서 종종 어디론가 떠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와시마의 영화를 ‘도주’의 영화라고 한다. 그들은 대체 어디

를 향해 떠나는 것일까? 만년에 가와시마는 지금까지 자신이 희극의 형식으로 그려왔던 것이 ‘적극적 도피’라고 단언한다. 가령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라’는 전진훈의 한 구절은 전쟁 중 병사들이 미덕으로 삼은 규율로 일본인은 그 규율에 순종했지만, 천황을 위해 명예롭게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는 완전히 대립된다. 이와 같이 ‘역사의 장치’에 의해 가공된 공간에 놓인 가와시마의 인물들은 마침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바꿔가는 ‘역사의 장치’의 기만을 발견한다. 즉 ‘적극적 도피’란 ‘역사의 장치’에 의해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감추는 위선에 대한 저항이며, ‘역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인 것이다.

다수의 상업영화를 만들어온 가와시마의 작품에서 이마무라의 작품과 같이 어떤 일관된 주제나 작가성을 발견해내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의 권위와 위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가와시마 특유의 시니컬한 유머를 만들어냈고, 이는 오늘날 날카로운 많은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희극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슬픔을, ‘경조부박’ 뒤에 숨겨진 무거움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의 영화에서 한층 더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 2013년도 기증자 감사장 증정식

황동환 \_ 수집부 ultra@koreafilm.or.kr



2013년 12월 18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2013년 기증자 감사장 증정식'. 한국영상자료원에 소중히 소장한 영상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기증 자료가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도착했다. 추억이 새겨진 개인 소장품부터 업계 최전선에서 활용되던 각종 필름과 비디오들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기증자료 목록을 채웠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자료를 기증해주신 기증자 분들을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2013년도 기증자 감사장 증정식'이 열렸다. 2013년도 영상 자료 기증자 중 한국영상자료원 자료 활용 내규에 의한 기증자 특별 우대 혜택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기증자분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영화 관련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국내외 극영화 전단 및 스틸 인쇄물 총 635점을 기증해주신 강상철 님, 고(故) 최승화 스틸기사의 유품인 국내 극영화 스틸 네거필름 및 스틸 인쇄물 9만 432점을 기증해주신 안영자 님, 국내 극영화 스틸 필름 및 인쇄물 2만 3678점을 기증해주신 양기주 님, 고(故) 전택이·노경희 배우의 활동 모습을 담은 스틸 인쇄물을 기증해주신 전영호 님, 도서 및 정기간행물 920점을 기증해주신 최석규 님, 전단 및 스틸 인쇄물 573점을 기증해주신 최정욱 님과 뎀티지 홀딩스, 선우엔터테인먼트, 에스와이코마드, 유니코리아 문예투자 등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분들도 초청되었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기증은 큰 의미를 가진다. 기증 받는 입장에선 '굴러들어온 복'이지만 그 복이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유품일 수도 있고, 회사의 자산일 수도 있다. 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이 날 기증자분들을 위해 약소하게나마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특별 제작한 24K 순금 기념 배지가 참석한 기증자분들에게 증정되었고, 간단한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영상자료원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자료원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필름보존실과 포스터 보존실, 스틸보존실을 업무담당자의 가이드 설명과 함께 둘러보면서 수집자료들이 최적의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 자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으로 나누어지는 영화 박물관과 시네마테크도 둘러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기증하신 자료들은 한국영상자료원과 한국영화계의 미래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

※ 한국영상자료원은 기증해주신 영상 자료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필름부터 빛바랜 스틸 사진 한 장까지, 소중한 영상 자료 기증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2-3153-2056)

2014년 3, 4월 KMDb VOD 기획전

## 한국 최고의 악당을 찾아서- 장르영화가 사랑한 악인들

이지영 \_ 자료서비스부 larue@koreafilm.or.kr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박노식, 1977)

누구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영화 속 악당이 한 명씩은 있다. 한국 영화에는 주인공보다 매력적인 수많은 조연배우가 있는데, 그들은 대개 악역이었다. 이번 기획전은 필름 누아르와 갱스터물, 공포 그리고 멜로 치정극 같은 장르영화 안에서 우리를 강렬하게 사로잡은 악인들의 영화들을 모아봤다.

먼저 모두가 악당인 필름 누아르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임권택의 〈사나이 삼대〉는 장동휘, 박노식, 김희라로 이어지는 건달 세계에서, 폭력의 역사를 끌어내려는 김희라의 악전고투를 냉소적이고 어두운 구도 속에 인상적으로 그려낸다. 또 박노식 감독의 독특한 괴작 〈악인이여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라〉는 맹인 박노식의 비장한 행보가 영화의 경쾌한 리듬 속에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그가 4명의 악인에게 '지옥행 특급열차권'을 선물하는 복수의 과정이 기상천외하다. 그리고 〈명동잔혹사〉에 이르면 악당의 비장한 라스트 신을 만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명치전' 시절부터 '서울의 심장'인 명동은 지친 얼굴의 악당이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숙명적인 장소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월하의 공동묘지〉의 욕망의 화신 도금봉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시무시하기는 이예춘도 만만찮은데, 〈공포의 이중인간〉에서 끊임없이 산 사람을 실험대에 눕히는 탐욕스러운 과학자 등 악역 전문 배우답게 그의 연기는 강렬하다. 최민수 역시 〈피아노맨〉의 의문의 연쇄살인마로 등장해 특유의 카리스마로 악인에 대한 공포를 극대치까지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이지만 매력적인 나쁜 남자이자 나쁜 여자들이 등장하는 치정극들을 놓치지 말자. 특히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의 멍한 듯 서늘한 오수미의 얼굴과 〈손톱〉의 열매감과 분노로 미쳐가는 진희경의 얼굴은 오래 기억될 만하다.

악당 곁에는 늘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있다. 그들이 악랄할수록 갈등은 고조되고, 몰입도는 높아진다. 비열한 배신, 견장을 수 없는 광기, 가슴을 찢는 복수. 13편의 장르영화 가운데 한국 영화 최고의 악인이 누구인지 가려보자. ★

장르	제목	감독
필름 누아르 (갱스터물)	노다지 (1961)	정창화
	사나이 삼대 (1969)	임권택
	명동잔혹사 (1972)	최인현 변장호 임권택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1976)	박노식
공포	현해탄은 알고 있다 (1961)	김기영
	월하의 공동묘지 (1967)	권철휘
	공포의 이중인간 (1974)	이용민
	피아노맨 (1996)	유상욱
멜로 치정극	위험한 청춘 (1966)	정창화
	하숙생 (1966)	정진우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 (1982)	정지영
	손톱 (1994)	김성홍
만주웨스턴	쇠사슬을 끊어라 (1971)	이만희





## 현존 최고(最古) 영화 포스터 〈임자없는 나룻배〉 복원본

이주영\_연구부 lulu@koreafilm.or.kr



한국영화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임자없는 나룻배〉(이규환, 1932) 포스터와 복원 과정

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자없는 나룻배〉(이규환, 1932) 포스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 포스터다. 현재 자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960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 포스터는 전체 보유량의 0.005%인 100여 편에 불과하다. 수치가 말해주듯이 오래된 포스터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드물뿐더러 입수 당시부터 지류의 강도가 약해 보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임자없는 나룻배〉 포스터의 경우 이런 문제와 더불어 포스터가 목재 프레임에 접착되어 있어 열화현상, 산화현상, 곰팡이 번식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수집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질되고 오염이 심한 상태였다. 가로로 꺾인 부분과 좌측 상단에 얼룩이 있었으며 하단부의 표면 오염이 심했고, 결정적으로 자료 아랫부분 일부가 잘려나가 있었다. 이렇듯 훼손 상태가 심각했지만 영상자료원은 수십 년 동안 원형을 잘 보존해왔고 영화박물관에서는 복제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보존 환경에도 세월 앞엔 장사 없는 법. 앞으로 자료의 변질을 최대한 늦추고 더욱 안전한 상태에서 보존하기 위해 포스터 원형 복구와 보존 처리가 시급했다. 이에 작년 5월부터 영상자료원의 자료 보존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존기술센터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약 4개월간 〈임자없는 나룻배〉 포스터 복원 및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누렇게 변질된 자료의 전체적인 색상이 밝아졌고, 잘려나간 아랫부분은 메움 후 색을 입혀 자료의 전체적인 균형과 분위기를 맞췄다. 자료의 재질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에 한지로 배접해 강도를 보강해주었다.

이렇게 복구된 포스터 원본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영화박물관에 전시되었고, 현재는 전시 노출로 인해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복원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복제본으로 대체 전시하고 있다. ★

## 영상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영상자료원 추천작들

정연주\_수집부 yjchheong@koreafilm.or.kr

### DVD | 릴로 & 스티치



하와이에서 부모님 없이 언니와 사는 인생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어린 소녀 릴로와, 무엇이트든 부수어대는 포악한 말썽쟁이에서 자기 별에서 쫓겨난 우주 괴생물체 스티치의 우정을 그린 2D 애니메이션이다. 디즈니에서 이런 작품을 냈을까 싶을 정도로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가득하다.

배가번호 : F-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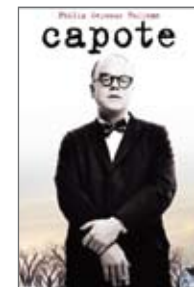
### 도서 | 미드와 핸드 무엇이 다른가



미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으로 미국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작환경을 비교한 것이라 딱딱할 것 같지만 읽어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어 재미있고 한국과 미국의 현격히 차이 나는 드라마 제작환경에 한숨을 짓게도 하는 책이다. 미드 덕후나 드라마 제작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즐겁게 읽어볼 만하다.

배가번호 : 419.51/03

### DVD | 카포티



작가 트루만 카포티는 캔자스에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접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추적, 검거, 판결, 사형에 이르기

까지 과정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대표작이자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논픽션 소설이라고도 하는 〈인 콜드 블러드〉를 집필하게 된다. 성공한 인기 작가에 패셔니스타이며 동성애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카포티는 또 한편으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과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신이 내린 재능을 지녔다고 할 정도의 연기력을 가졌지만 약물 중독으로 생을 마감한 필립 시무어 주니어가 작가 트루만 카포티를 연기했고 그해(2006년)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탔다.

배가번호 : 2928

### DVD | 브라이트 스타



제인 캠피온 감독의 2009년 영화.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연인이었던 페니 브론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19세

기영국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실제 일화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적인 영화는 아니고 연인 페니 브론의 시점에서 그려지는 매우 아름다운 작품이다. 키츠를 연기하는 벤 위쇼와 페니 브론 역의 애비 코니쉬의 연기를 보는 것도 즐겁지만 무엇보다도 절제된 것 같으면서 극도로 섬세한 센수얼한 화면에 감탄하게 된다. 국내에는 DVD가 발매되지 않아 현재 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외판 DVD이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 영어 듣기 평가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

DVD 배가번호 : 16230  
블루레이 배가번호 : 16329

### OST |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전세계적으로 인기인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의 OST다. 영화를 한 편도 안 봤더라도, 영화를 봤지만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OST만 큼은 영화와 별개로 들어줘도 좋을 것 같다. 필자 역시 영화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OST 뒷면의 아티스트들을 보니 이 음반을 그냥 지나치기 아쉬웠다. 콜드플레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팻 스미스 등 쟁쟁한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종합선물세트.

배가번호 : F-1085

## 어린이 만화영화의 역사, 김청기 감독

이정아\_영화연구자 tubbylee@hanmail.net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어려운 시절부터 근대화에 밀려 소외된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인식했던 김청기 감독. 그의 노력은 <로버트 태권 V> 시리즈와 <똥이장군> 시리즈에 고스란히 남아 당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로버트 태권 V>(1976)를 제작, 감독한 김청기 감독을 만난 것은 2012년 주제가 구술을 통해서다. 김청기 감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성장기를 보낸 이들에게는 친숙한 이름이다. <로버트 태권 V>를 비롯해 <로버트 태권 V - 제3탄 수중특공대>(1977) <로버트 태권V와 황금날개의 대결>(1978) 등의 <로버트 태권 V> 시리즈와 <똥이장군>시리즈는 지금의 중·장년층들이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봤을 영화들이다.

김청기 감독은 만화영화 제작에 입문하기 전에 출판만화계에서 만화작가로 활동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 김청기 감독이 만화작가로 활동한 당시는 어린이를 교육과 훈육의 대

상으로만 여길 뿐이지 어린이 문화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만화나 만화영화를 저급하다고 비하했다. 김청기 감독은 이런 현실에 회의를 느낄 즈음 월트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된 김청기 감독은 월트디즈니 영화를 수입하고 <홍길동>(신동현 감독) 등을 제작한 세기상사의 <손오공> <보물섬> <황금철인>에 원화맨으로 참여하면서 만화영화계에 입문한다.

1970년대 영화법에서는 만화영화를 문화영화의 범주로 포괄했다. 그러므로 당시 민간의 문화영화 제작사에서는 문화영화

이외에도 극장 상영용 만화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김청기 감독은 유현목 감독이 운영한 민간 문화영화 제작사인 유프로덕션에서 <로버트 태권 V>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김청기 감독이 문화영화계와 인연을 맺게 된 연유는 비단 만화영화의 제작에만 있지 않다. 김청기 감독은 만화영화를 만들면서 한편으로 민간 문화영화 제작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영화 제작에 삽입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각종 정보, 기업 홍보물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제작했다. 김청기 감독에 따르면 극장 상영용 만화영화를 제작할 당시 제작비의 일부를 광고 및 문화영화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 역사에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위로

김청기 감독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국립영화제작소 출신의 박영일 감독과 함께 만화영화 제작사인 서울동화를 설립해 <로버트 태권 V>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황금철인>(1968) <보물섬>(1969) 등을 만든 박영일 감독이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김청기 감독은 유현목 감독의 유프로덕션에서 이를 제작하게 되었다. 1973년의 영화법에서는 영화 및 문화영화 제작업이 허가제였다. 영화제작사 설립이 여의치 않았던 김청기 감독은 대명 제작을 통해 <로버트 태권 V>를 제작할 수 밖에 없었다. 김청기 감독이 직접 제작사를 설립하고 영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제작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김청기 감독은 어린이 만화영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 부족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로버트 태권 V> 시리즈와 <똥이장군> 시리즈, 그리고 <우뢰매> 시리즈 등 어린이를 위한 극장 상영용 장편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6·25전쟁 기간 중 아버지를 잃은 김청기 감독은 전후의 고단한 삶에서 만화를 보고 그리며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김청기 감독은 어린 시절 김내



구술 채록 중 손수 노트에 '강통로봇' 캐릭터를 그려보이고 있는 김청기 감독

성의 소년탐정소설과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문화적 경험은 후일 김청기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

영화 <정글북>과 늑대소년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똥이장군>은 세종문화회관 개봉 당시 1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주제를 담은 앨범도 10만 장 넘게 팔렸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김청기 감독은 애니메이션에만 그치지 않고 어린이 잡지와 전용 극장을 만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로버트 태권 V'와 '똥이' 그리고 '우뢰매'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캐릭터이자 문화 콘텐츠다.

김청기 감독은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어려운 시절에 외국에서 수입한 만화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캐릭터를 내세운 국산 만화영화를 제작했다. 또한 어린이 문화가 척박했던 시절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비록 <똥이장군> 시리즈가 반공 이데올로기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청기 감독은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어린이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최지웅\_영화포스터 디자이너&영화자료 수집가 choijw21@hanmail.net

1957년, 역사적인 한국 첫 개봉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수 없이 재개봉된 전설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서울에서만 1957, 1964, 1972, 1973, 1975, 1976, 1977, 1982, 1983, 1984, 1995년에 개봉되었으니 <벤허>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재개봉된 수많은 명작 사이에서도 최다 재개봉 횟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재미있는 것은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재개봉되어서인지 크라-크-게-블/ 크라크-게블/ 크라크 케이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쓰여진 외국어 한글표기법, 개봉 때마다 달라지는 로고 디자인, 그리고 우리나라 인쇄 기술의 발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변화를,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 알아본다. ★



01



02



04



06-1



06-2



03



07



05

01, 02. 1957년 개봉 | 보도자료, 전단  
1957년 국내 최초 개봉 시의 보도자료(Press Sheet)와 전단. 1939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무려 18년 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다. 수도영화주식회사에서 수입하고 수도권극장과 국도극장에서 동시 개봉되었다.

03. 1964년 개봉 | 신문광고  
<로미오와 줄리엣> <퀴바디스> 등의 명작을 한국에 들여온 세기상사에서 재수입.

04. 1972년 개봉 | 전단  
중앙극장에서 개봉한 국내 세 번째 수입 버전. 대영흥행에서 수입 후 판권 만료가 되는 1977년까지 재탕에 삼탕, 사탕을 반복하며 무려 5번이나 개봉. 말 그대로 '뽕을 뽑은' 작품.

05. 1979년 개봉 | 영화카드  
전주 대한극장판 영화카드. 멀티플렉스 시대 인 지금은 전국 모든 극장의 전단지들이 같은 디자인으로 나오지만, 단관극장 시절에는 지방의 극장들도 서울 버전과는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1977년에 정식 상영이 끝난 필름을 지방으로 돌리며 재상영하던 시기인 듯하다.

06. 1982년 개봉 | 전단  
신한문예영화에서 들어온 네 번째 수입판. '82 신수입' 홍보문구를 광고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1도와 2도 컬러만을 사용하던 기존 개봉 버전들과는 달리 4도 올컬러와 은별색을 과감하게 사용한 전단지라 눈에 띈다.

07. 1995년 개봉 | 신문광고  
직배영화 시대가 열린 후 UIP의 배급으로 전국에 개봉된 버전. 1991년 국내 최초로 비디오가 출시되고, 이듬해 KBS에서 국내 최초의 TV 방영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TV나 비디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대형스크린을 통해 감상하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재곤 감독의 <이층의 악당>(2010)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스크루볼 코미디 버전

전종혁\_영화칼럼니스트 hubul2@naver.com

일찍이 장준하 감독은 <지구를 지켜라>(2003)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미저리>(1990)를 뽑은 적이 있다. 병구(신하균)가 강사장(백윤식)을 납치해 고문하는 상황은 케시 베이츠와 제임스 칸의 가학적 애정 관계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었다. 이렇듯 2000년대에 등장한 주요 감독들(봉준호, 최동훈 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화적 차용(고전의 인용)이나 장르의 혼용을 즐기는 데 있다. 영화광 출신의 이 감독들은 고전 영화의 문법이나 스타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데 능수능란했다. 이전의 세대와 비교해 영화를 바라보는 자세나 태도도 많이 달랐다. 굳이 리얼리즘 세계관이나 영화적 메시지에 집착하지 않았다. 손재곤 감독 역시 그런 대표 주자 중 하나였다. <달콤, 살벌한 연인>(2006)은 히치콕적인 세계관(죄의식과 강박관념)을 로맨틱 코미디와 엉뚱하게 접합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의 산물이다. 제목부터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처럼 연애의 설렘과 긴장감이 묘한 공포(혹은 미스터리)와 맞물리면서 재미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미나(최강희) 캐릭터는 남성들을 은

밀하게 유혹하는 동시에 뒤통수를 치듯 판타지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전복성을 지녔다. 알고 보면 그녀의 본명은 '이미자'로 밝혀진다. 미스터리한 여인의 정체가 연쇄살인범이고, 본명이 트로트 가수라는 점이 아이러니한 웃음을 자아냈다. 그래서 데뷔작을 보자마자 손재곤 감독의 차기작이 더욱 궁금해졌다.

4년 후, 그가 완성한 두 번째 영화 <이층의 악당>(2010)은 놀랍게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의 모티프를 그대로 가져왔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주요 무대는 시어머니(한은진), 엄마(최은희)와 옥희(전영선), 식모(도금봉)만이 사는 과부집이다. 마치 '금남의 집'처럼 4명의 여인만이 살고 있다. 영화는 이 집의 사랑방에 한 선생님(김진규)이 하숙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담고 있다. <이층의 악당>은 이 영화를 2010년대 풍속도로 재구성하고 비틀면서 여인의 욕망을 분출시키고 있다. 손재곤 감독의 톡톡 튀는 재치는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우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시대가 변화하다보니, 할머니와 식모의 존재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층의 악당>에

는 연주(김혜수)와 딸 성아(지우)만 살고 있다. 그림을 그리던 한 선생님은 백자를 노리는 사기꾼 창인(한석규)으로 바뀌어 있다. 가장 재미있는 설정은 "그 아저씨 마음 좋게 생겼지!"라고 참구수하게(?) 말하던 여섯 살 옥희가 어느새 자라서 까칠한 여중생 성아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유 소녀(국민여동생)였던 성아는 사춘기가 되면서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중이라서 이층 아저씨의 등장이 하나도 반갑지 않다. 오히려 엄마의 연애를 눈치채고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니, 창인에겐 고춧가루 소녀로 보일 수밖에 없다.

### 가족 멜로드라마의 유쾌한 변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랑방 장면이다. 능글맞은 식모가 사랑방에 들어간 한 선생의 뒷옷 냄새를 맡는다. 땀 냄새와 체취를 맡으며 즐길 때, 옥희의 어머니가 불쑥 나타나 "나와요. 내가 치울게!"라고 외치며, 식모를 내쫓는다. 그 후 그녀는 한 선생의 중절모를 들어서 냄새를 맡은 후, 직접 써보기까지 한다. 곧게 한복을 입은 그녀는 중절모를 쓰고 거울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 이 영화에서 배우 최은희가 가장 아름답게 웃는 장면이자 동시에 한국영화사를 50년 이상 빛낸 명장면이다. 금지된 욕망을 꿈꾸는 이 일탈의 장면은 너무 짧아서 마치 판타지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층의 악당>에서 이 거울 장면은 연주의 몫이 아니다. "남자가 왔네!"라고 말하며 은근히 연주를 엿보는 옆집 여인(이용녀)은 한밤중에 거울을 보며 외로움을 달랜다. 옆집 여인 캐릭터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할머니(감시자)와 식모(연적)를 반쯤 섞어놓은 면모를 보인다. 반면 연주는 거울을 보며 애달픈 판타지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현실에 버젓이 이층집 남자가 있기 때문이다. 옥희 어머니가 사랑의 매개자 옥희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았던 것과 달리, 연주는 직접 이층으로 올라가 창인과 밤을 보내고 자신의 불면증을 위로받을

수 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술 취한 한 선생이 목이 탈 때, 물을 갖고 나타난 옥희 엄마와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 짧게 일어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연주가 제2의 로맨스를 꿈꾸는 것과 달리, 이 영화를 도둑 창인 입장에서 재구성한다면 못 말리는 해프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소설가로 위장하고 연주의 집에 온 이유는 고가의 백자를 찾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보물을 찾기 위해 접근하지만, 임기응변으로 연주를 유혹하는 방식을 선택하자 그녀와의 '밀당' 과정이 이어진다. 이 영화의 백미는 창인이 지하실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굶어서 헬썩한 것을 보고, 연주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장면이다. 범죄물이 멜로드라마적 상상력과 만났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유머이자 화학작용이었다. 보물을 훔치기 위해 잔꾀를 동원하는 이 어수룩한 도둑은 어딘가 일링 코미디에서 보던 캐릭터와 닮았다. 일링 코미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작자 마이클 벨킨의 주도로 영국 일링 스튜디오가 선보였던 블랙 코미디다. 일이 자꾸 꼬이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창인의 설상가상 시추에이션은 일링 스튜디오의 <레이디 킬러>(1955)와 흡사하다. 게다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집념의 사나이 창인이 교도소에서 돌아와 새로운 가족(연주와의 대안 가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원작에 대한 따뜻한 재해석이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다시 써 내려간 <이층의 악당>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읽더라도 다채롭고 풍요롭다. 원작에 대한 유희적 놀이나 영화 장르와 관습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횡단을 엿볼 수 있다. 최은희와 김진규만큼이나 김혜수와 한석규의 연기 공합 또한 눈부시다. 즉 이들의 사랑스러운 입심은 한국형 스크루볼 코미디의 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적이고 도발적인 코미디는 머지않아 가족 멜로드라마의 새로운 고전이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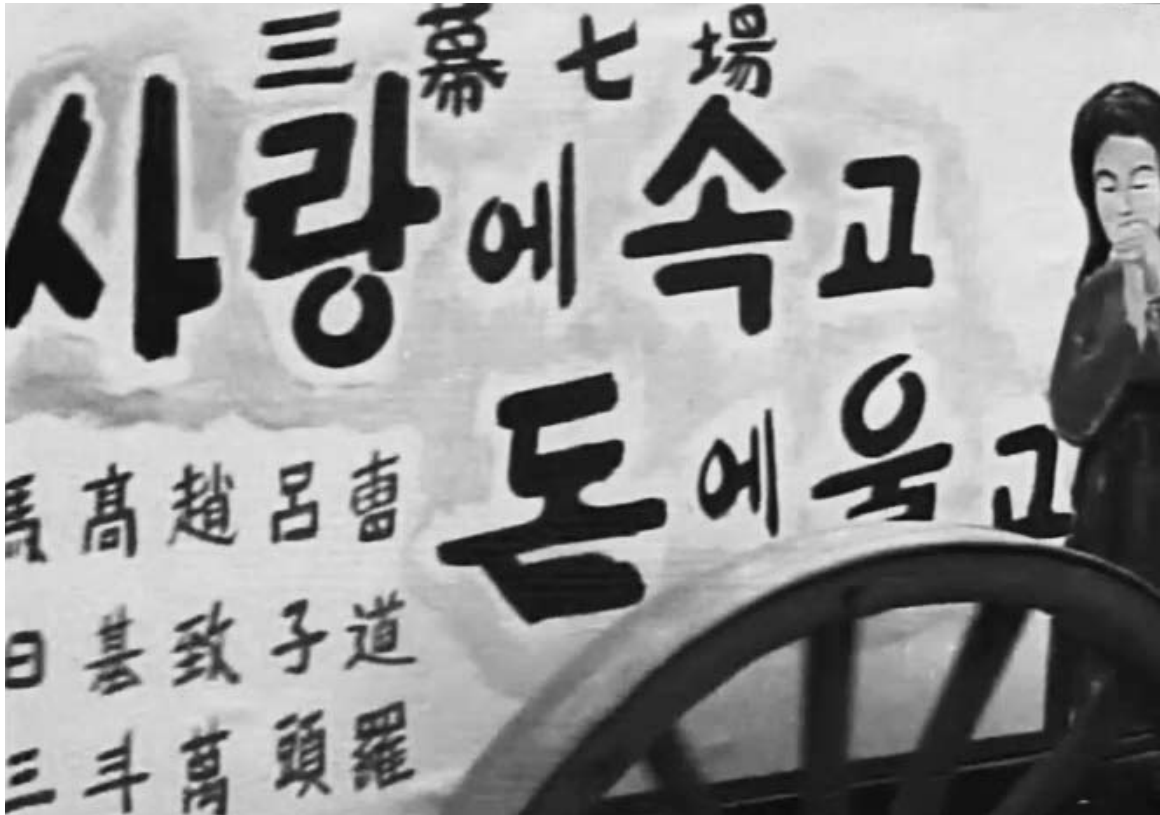
<이층의 악당>(손재곤, 2010)



대중가요의 반세기를 읽는 몇 가지 방법

## 〈가요 반세기〉 관람을 위한 안내문

이준희\_음악평론가 songcing@chol.com



송해, 오천평 등 코미디언들이 출연한 악극단 행렬 '마치마와리'의 한 장면

지난 1월 중순 영화 필름 발굴 소식 하나가 세간에 화제를 모았다.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특히 옛 가요 팬들이라면 당장이라도 꼭 확인하고 싶은 제목의 영화 〈가요 반세기〉,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필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낌없이 상찬할 만한 영상자료원의 자료 발굴 성과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가요 반세기〉를 찾아낸 것은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필름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돼왔기에 약간만 손질해서 곧

공개 시사를 할 참이라 하는데, 보기 드문 음악영화 〈가요 반세기〉를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안내문이 필요할 듯싶다. 대중가요의 반세기 '역사'를 다룬 내용인 만큼, 그 역사 서술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챙겨봐야 할 것이다. 〈가요 반세기〉에 관한 글은 벌써 4년 전인 2010년에 제15호 지면을 통해서도 선보인 적이 있으나, 영상은 보지 못한 채 시나리오와 기타 자료만으로 쓴 것이라 유효한 안내서로 삼기에는 아무래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영화가 개봉된 1968년 시점에서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대략 반세기로 설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일이다. 1916년에 일본 신파극 주제가의 번안곡 '카추샤의 노래'가 처음 등장했고, 1920년 무렵 미국 찬송가 곡조를 딴 '탕자자탄가(蕩子自嘆歌, 요즘은 '희망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가 대유행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진행을 맡은 김진규가 당시 초창기 작품으로 직접 기타를 잡고 소개한(노래는 물론 다른 이의 목소리) '방랑가'는 1931년에 발표된 곡이므로, 순서상 너무 일찍 등장한 감이 있다.

### 〈가요 반세기〉에 얹힌 시시콜콜한 이야기

제작년 유네스코에서 전해진 소식 덕에 근래 주가가 급등한 '아리랑'을 중요한 초창기 대중가요로 소개한 대목에도 얼마간은 문제가 있다. 영화에서는 아리랑이 극단 토월회의 연극 무대를 통해 처음 불리게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리랑은 연극이 아닌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주제가로 1926년에 첫선을 보인 곡이다. 토월회에서도 〈아리랑고개〉 같은 작품을 상연하기는 했으나, 그 시점은 영화 개봉 뒤인 1929년이다. 여하튼 영화와 연극의 성공에 힘입은 바도 있어 아리랑이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가운데 몇몇 아리랑 음반이 치안 방해를 이유로 실제 발매 금지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리랑이 전면적으로 부를 수 없게 금지되었다고 묘사한 것은 무리한 확대 해석이다. 또 1923년이었던 토월회의 첫 공연을 1922년이라 한 것도 소소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오류다.

대중가요 유통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던 SP음반과 그 재생기인 축음기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인다. 축음기의 도입 시기를 〈가요 반세기〉에서는 1920년대라 하고 있으나, 한국 음악이 녹음된 SP음반 판매 광고가 신문



지면에 처음 등장했던 때는 그보다 한참 먼저인 1907년이다. 그리고 SP음반보다 앞서 에디슨이 고안한 원통형 음반에 관한 기록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1932년에 음반이 발표되어 본격적인 대중가요 성장기의 선구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 '황성(荒城)의 적(跡)', 즉 '황성 옛터'의 창작 일화 재연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영화에서는 이 노래가 1929년 무렵 극단의 지방 순회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이어 서울 무대에서도 소개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했지만, 그러한 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다. 노래 1절 가사와 2절 가사를 뒤섞어버린 것, '황성 옛터'를 '아리랑'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금지곡으로 묘사한 것은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오류이며, 극단 이름인 취성좌(聚星座)를 극장 이름인 것처럼 쓴 것도 좀 아쉬운 실수다.

〈가요 반세기〉출연 가수들 중 가장 원로인 고복수가 직접 등장해 데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은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영상이기도 한데, 역시 적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고복수가 참여한 콩쿠르는 1927년이 아니라 1933년(예선)과 1934년(본선)에 걸쳐 개최되었고, 그 당시 그가 본선에서 불렀던 노래는 '낙화암'이 아니라 '사랑은 구슬퍼'였다. 예선 참가곡으로 '낙화암'을 불렀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짚어봐야 하는 점이다. 고복수와 함께 많은 노래를 듀엣으로 발표하기도 했던 이난영의 대표작 '목포의 눈물' 작사자를 문일석이 아닌 김능인으로 소개한 것 역시 간단하지만 다소 거슬리는 착오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알아야 면장(免牆)을 하기도 한다. 〈가요 반세기〉를 제대로 보려면, 좀 시시콜콜하기는 해도 이런 안내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려면 송해, 오천평 등 코미디언들이 출연한 악극단 행렬, 즉 '마치마와리(町廻り)' 장면의 수레 옆 적힌 이름들을 챙겨볼 필요도 있다. ★

## “가장 많이 본 영화는 무엇인가요?”



### Alexey\_Tatianov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샤워하고, 자기 전에 매일 이걸 보고나  
서 잠자리에 들었지요. 대충 한 학기 동  
안 그랬으니까, 최소 200회는 보았을  
거예요. 그 후로 지금도 짹짹 보고 있  
고요.

### 35thestranger

제가 가장 많이 봤을 거라고 당당하게  
답멘션을 드리려고 했는데… 〈레미제  
라블〉을 32번 봤어요 u.u 뮤지컬도 좋  
아하고, 프랑스혁명도 좋아하고, 게다  
가 좋아하는 배우도 출연했기 때문에.  
영화 말고 뮤지컬 버전도 보고 흐히.

### taameetaam

〈퀸카로 살아남는 법〉을 100번은 넘  
게 본지라 영화 대사를 전부 외우고 있  
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내가 유일할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접하고 덕후라면  
이 영화 대사 정도는 전부 외우고 있어  
줘야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

### Ranwoo\_39

…〈설국열차〉. 영화 개봉 당시에만 거의  
매일 1번씩 꼭 봐서 영화관에서 돈 주고  
본 게 41번, 후에 현대백화점에서 재상  
영해줄 때 3번. 지금 각종 인터내셔널 티  
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영화를 보러 일본  
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 mintchocowow

〈평화의 시대〉 7번 봤습니다. 왜냐면  
CLUB H.O.T. 였습니다. 영화 끝나고 스  
크립트 다 올라가면 깜짝 영상 나오기 때  
문에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올  
라가면 영상 더 나와요!!”라고 홍보했습  
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땐 스크립트 다 올  
라가고 영상 나온 거에 토니가 귀엽게 나  
와서 좋아서 보다가 울었습니다.

### 42koo

유관위·홍금보 제작의 〈강시선생〉이요!  
어릴 적 폐점한 비디오 가게 앞에서 주  
웠죠. 동생과 함께 하루에 두세 번씩 보  
다가 몇 년 후 필름이 늘어져서 버렸습  
니다. 횡수로 치자면 몇 백 번은 봤겠네

요. 덕분에 이상한 야매 중국어를 좀  
합니다. ㅎㅎ

### jasunglee

저 〈신세계〉 극장에서만 30번 넘게 봤  
어요. 〈신세계〉 보고 깃가에 팡파레가  
울림과 동시에 바로 무대 인사 영화를  
예매해서 또 보고, 그날 이후 그냥 영화  
관으로 출근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 보라고 하고, 저도 많이 보고.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눈이 즐거웠습니다!

### butohbutoh

〈홀리마운틴〉. 알레한드로 조도로프  
스키 감독은 영화를 찍기 위해 '7일간  
금식, 모든 배우와 잠을 자라'는 구루  
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얼토당토  
않은 가르침은 영화를 보면 볼수록 마  
치 당연히 했어야 할 의식처럼 느껴진  
다. 7회.

## facebook

### 소헨춘

저는 〈백투더퓨처〉 덕후입니다. ㅎㅎ  
100번까지는 본 횟수를 썼는데 그 후  
로는 잘 모르겠네요. 〈백투더퓨처〉를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보다 더 훌륭한 시간여행 영화를 본 적  
이 없거든요!

### Hyun-sik Moon

저는 〈트레인스포팅〉입니다. 대니 보  
일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좋아 한  
번, 이완 맥그리거의 소싯적 창창함이  
그리워 두 번, 이기팝의 ‘Lust for life’  
등 배경음악의 청량감이 환상적이라  
세 번. 그렇게 20여 번은 본 것 같습니  
다. OST를 통한 감상보다 영상과 함께  
한 본편을 통해 감상하는 것이 더욱 상  
승효과가 발휘된 멋진 음악들입니다.  
Choose life!

### Ji Mahn Park

〈대부〉 1,2, 각 편 30회 이상씩 봤죠. 영  
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화이기에…

### 유희재

중2 때인가 〈씨받이〉 극장에서 열 번은  
본 거 같습니다. 당시 동네 삼류 극장 단  
골 동시상영작이라 새로운 상영작과 특  
하면 틀어대는 바람에 안 보기도 그렇고  
해서… 덕분에 대사는 달달 외웠다는~  
그 인연으로 색이 바랜 채 책장에 꽂혀  
있는 비디오테이프!

### Adam Bohnet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미몽〉입니다. 수  
업에서 몇 번 학생들에게 보여주었기 때  
문입니다.

### 이영은

이상하게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따로 있  
는데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콘스탄틴〉  
은 한 30번 넘게 본 것 같네요. 일단 그  
시기(질풍노도의 시기)에 키아누를 워  
낙 좋아했고, 천사/악마/뱀파이어/좀비  
etc + 현대적 배경은 제가 사족을 못 쓰  
는 소재라서 ㅋㅋ 그리고 키아누가 거기  
서 제일 섹시하게 나온 것 같아요. 흰 셔  
츠에 까만 트렌치코트 거기에 고독한,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그 모습… 그만  
하겠습니다.

### Chun IL Byun

저는 마쓰 다카코 주연의 〈4월 이야기〉  
를 꽤 많이 봤네요. 2000년 11월 즈음  
인가 처음 접하고 그렇게 지나고 나서  
2001년 3월 대학 입학 후 생각나 다시  
봤는데 당시 짝사랑 중이어선진 몰라도  
두세 달 동안 30번 넘게 보고, 이후에도  
매년 한국 입학 시즌인 3월 영화 배경인  
4월에 DVD 꺼내 보다가 작년부턴 블  
루레이로 시청하네요. 올해 3,4월에도  
매년 그렇듯 또 시청하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팔로우, 좋아요 해주세요. 이번 ‘SNS로 말해요’ 코너에 실  
린 분들께는 영상자료원이 펴낸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트위터 @Film\_Archiv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koreanfilmarchive](https://www.facebook.com/koreanfilm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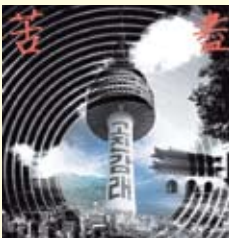
## 한국영화계 키워드 5 (2014.01~02)

유성관 \_ 자료서비스부 duane@koreafilm.or.kr



### 한국영화의 영원한 어머니, 원로배우 황정순 별세

지난 2월 17일, 원로배우 황정순 씨가 타계했다. 1940년 동양극장 청춘좌에 입단해 배우가 된 후, 1941년 허영 감독의 <그대와 나>로 영화에 발을 들여 37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 황정순은 한국 고전영화의 어머니로,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게는 <보통사람들>과 같은 TV 드라마를 통해 인자한 할머니로 각인되었다. 몇 년 전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한국영상자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고우셨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찬욱, 박찬경 감독의 ‘우리의 영화, 서울’ 프로젝트 <고진감래> 유튜브 개봉

유튜브로 일반 시민들에게 서울에 대한 영상을 받았다. 국내에서 6523편, 해외에서 5329편이 접수된 가운데 141명의 154편의 영상이 편집에 사용됐다. <고진감래> 속의 서울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다양하다. 솔직히 매력적이거나 즐거워 보이는 도시도 아니다. 어느 정도 기괴해 보인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그 분위기에는 영상을 고르고 편집한 두 감독뿐 아니라 장영규의 음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하긴 그게 바로 서울일지도 모르겠다.



### 한예중, 네이버·유에포에 졸업작품 상영

네이버 tvcast는 지난 2월 4일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졸업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2011~2012년 작품들 중 심사위원과 교수진으로부터 추천받은 30여 편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중이다.

사실 네이버 이전부터 단편영화 VOD 사이트 유에포(youefo.com)에서 영상원 작품들을 꾸준히 상영하고 있었으니 더 많은 작품을 원하는 분들은 유에포로 가면 되겠다.



### 2014년 흥행이 시작되었다

2013년 12월에 개봉한 <변호인>은 2014년 1월 19일 관객 1000만을 돌파했다. 그리고 현재 스코어는 1136만 명. 공유의 <용의자>가 413만, 심은경의 <수상한 그녀>는 715만 명. 이로서 2013년 1조 8000억으로 최고매출을 기록했던 한국영화의 2014년 관객물기도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만 끝내기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900만 흥행을 빼놓을 수가 없다. 특히 주제가 레리코의 돌풍은 전국을 씹어 삼키는 중. 레리코~ 레리코~ (그다음 모름)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의미 있는 흥행

지난 2월 6일 개봉한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를 다룬 영화다. 개봉을 앞두고 극장들은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라는 보도가 있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관객들의 기대치에 비해 상영관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또 스타가 없음에도, 개봉 3주차에 박스오피스 6위, 총 관객 40만을 기록하고 있음은 의미 있는 징조다. 같은 소재의 다큐 <탐욕의 제국>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



## 발행인의 글

지난 1월, 영상자료원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영화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1934년작 <청춘의 십자로>부터 2012년 12월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중 동점작을 포함해 총 101편의 영화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101편의 영화가 지금까지 제작된 모든 한국영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제시기와 6·25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한 모든 영화인의 예술 혼이 담긴 모든 작품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선정된 100선을 통해 지나온 한국영화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천국>은 ‘한국영화 100선’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SNS를 통해 발표된 순위와 통계 이외에 좀 더 심도 깊은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는 4월 <한국영상자료원 40년사> 발간을 시작으로, 5월부터 기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들이 실시됩니다.

지난 2013년 영상자료원이 홍콩에서 발굴한 <이국정원>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한 달간 국내외 우수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발굴·복원 영화제’,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필름의 미래를 고민해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영상자료원 40년사를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는 영화박물관 특별전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계기로 영상자료원이 보다 친근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도록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이병훈

### 영상자료원 이용안내

#### 시네마테크 KOFA

상영 안내 | 화~일요일 1월 3회 상영  
※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 가능/홈페이지 참조  
티켓 금액 | 무료  
문의 | 프로그램 02-3153-2075~77  
대관 및 시설 02-3153-2033

#### 한국영화박물관

이용 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휴관 : 매주 월요일, 설/추석 연휴  
입장료 | 무료 입장  
문의 | 단체관람, 교육 문의 02-3153-2031  
전시해설 및 단체관람 (소요시간 : 약 50분)  
주중(화~금) 15:00, 토·일 11:00, 15:00

#### 영상도서관

상영(본원) 이용 시간 | 평일 : 10:00~19:00,  
주말 : 10:00~18:00, 휴관 :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설/추석 연휴  
이용 대상 | 만 15세 이상 (영상물은 관람등급 적용)  
이용료 | 무료  
문의 | 02-3153-2051

#### 홈페이지 안내

한국영상자료원 [www.koreafilm.or.kr](http://www.koreafilm.or.kr)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www.kmdb.or.kr](http://www.kmdb.or.kr)  
한국영화 VOD [www.kmdb.or.kr/vod](http://www.kmdb.or.kr/vod)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film\\_archive](http://blog.naver.com/film_archive)  
공식 트위터 [twitter.com/film\\_archive](http://twitter.com/film_archive)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nfilmarchive](http://www.facebook.com/koreanfilmarchive)

#### 자료기증 안내

대상자 | 모든 개인과 단체  
대상 자료 | 필름, 시나리오, 스틸 사진, 포스터, 비디오물, 오디오, 소품, 기자재, 의상, 도서 등 영화 관련 모든 자료  
제반 권리 | 물권 한국영상자료원 양도 (저작권 별도)  
문의 | 수집부 02-3153-2054 (필름 기증)  
02-3153-2056 (비필름 기증)

#### 자료 위탁 안내

대상자 | 자료원 회원 가입한 개인과 단체  
대상 자료 | 국내 원음판이나 보존용 필름  
제반 권리 | 물권 위탁자 소유 (저작권 별도), 일시 혹은 영구 출고 가능  
문의 | 수집부 02-3153-2054

### 오시는 길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2번 출구)에서 7711번, 771번, 7730번 버스 타고 누리꿈스퀘어 하차  
버스 누리꿈스퀘어 하차 도보 3분(파란버스 171번, 271번, 470번, 710번 | 녹색버스 6715번, 7013번, 7019번, 7711번, 7715번, 7730번 | 빨간버스 9711번)  
자가용 내비게이션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을 검색하세요.  
주차안내 시네마테크KOFA, 한국영화박물관, 영상도서관 이용 시 3시간 무료주차(단,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주차)



## 최아름·신아수 감독의 <아름들>(2013) 진부하고 비루한 삶의, 미학

박준\_ 시인 mynameisjoon@hanmail.net

시인.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문학을 잘 배우면 다른 이에게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알았다.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해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문학동네, 2012)를 발간했다. 제31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내가 시인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주로 언제 시적인 영감(靈感)이 떠오르느냐?”는 것이다.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진 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시인 대부분은 영감으로 시를 쓰지 않아요.”라고 답한다.

조금 더 살을 붙여 이야기하자면 시는 장엄한 풍경 앞이나 특별한 감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부하고 비루한 삶 속에서 끓어 터져 나오는 것에 가깝다. 시는 우리의 삶을 꼭 빼닮았으므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의 기억에는 특별한 일보다,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의 소소한 일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기 시작한 데에는 어떤 사건이 작용했기 마련이지만 타인을 좋아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연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는 늘 미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이다.

나는 영화를 볼 때에도 크고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보다 소소한 일들과 깊은 여백들로 구성된 작품을 좋아한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최아름·신아수 감독의 영화 <아름들>에는 어느 젊은 시인의 하루가 담겨 있다.

시인의 하루는 인감도장을 파거나, 재미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선배와 술을 마시거나, 일 같지도 않은 일로 상사에게 혼이 나거나, 집 열쇠를 잃어버리는 작은 에피소드를 담은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 영화를 통틀어 가장 커다란 사건의 등장은 바뀌어버린 자취방의 열쇠를 찾으러 친누나에게 가는 장면에서다. 자전거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달리며 주인공은 “내가 지나야 할 시간이 많다는 게 언제나 무서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누나 나는 무서워.”라는 독백을 남긴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이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친한 이에게조차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통틀어 채 몇 번도 되지 않을 하나의 사건이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미덕이라면 두려움을 참고 사는 것은 미련이다.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맑은 눈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있다는 것, 이것은 진부하고 비루한 삶 가운데에서 탄생하는 유일한 미학이다.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국민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Q.** 민원종류에 따라 찾아가야 하는 기관도 다르고,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소모돼요.  
**A.** 앞으로는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 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예시)



### 기업이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도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Q.** 창업을 하고 싶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너무 불편한 거 같아요.  
**A.** 앞으로는 공장 설립 승인 절차가 간편하고 빨라지게 되고,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전 과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례〉 ▼ 공장설립 승인 절차



### 노약자나 취약계층 등 정보접근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Q.** 몸이 불편해서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좀 더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의 생활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배달해드리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는 추세인데,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A.** 정부에서는 모바일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SOS국민안심서비스 등)를 발굴하여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